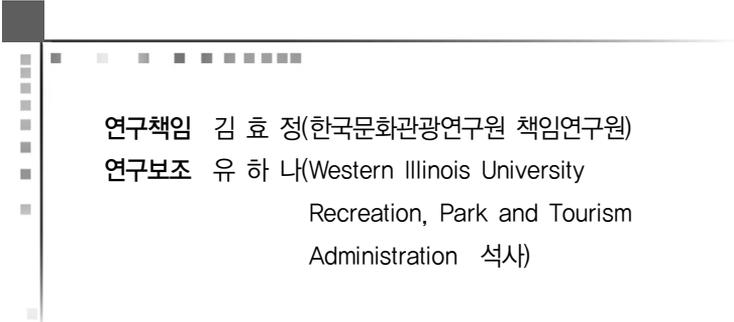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김효정





연구책임 김 호 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유 하 나(Western Illinois University
Recreation, Park and Tourism
Administration 석사)

서 문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내세우며,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 등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창조의 꽃을 피우는 창조경제 시대를 열었다.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 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규모가 2500억 원에 이르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뮤지컬, K-POP 콘서트 등 공연예술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시장의 가능성 및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과 달리 여전히 공연예술단체는 높은 공연장 임대료와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단체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공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공연장 확충 및 저작권리 보장 등 예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국가 정책에 대응하여 공연예술단체는 지금까지의 협소한 공연시장과 열악한 공연 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단체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창조경제시대의 꽃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공연시장 활성화 및 공연계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는 국가의 공연예술단체 육성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3년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연구개요 ● ●



1. 연구의 배경

- 최근 일부 뮤지컬, 오페라, 연극 공연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협소한 공연시장, 높은 공연장 임대료,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단체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미비 등을 이유로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일자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창조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공연예술단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문화예술인의 고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 및 창출방안 모색
-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를 위하여 창조경제시대 대응한 공연예술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도출

3. 연구의 범위

-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특성 및 현황,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분석
-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4. 연구의 방법

- 문헌자료, 현황자료 등 조사 및 분석, 공연예술단체 실태(현장) 및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5.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방해요인 및 개선방안

- 조사를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은 단체의 경영의식 저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등의 문제점 드러남
 - 공연예술단체의 특성화, 자구책 마련,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
-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원정책들은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진행 및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의 문제가 발견됨
 - 지원정책의 정체성 확립, 거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높은 장기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가 필요
- 일자리, 재원, 교육, 컨설팅 등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총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생태계의 거점 마련과 함께 공연예술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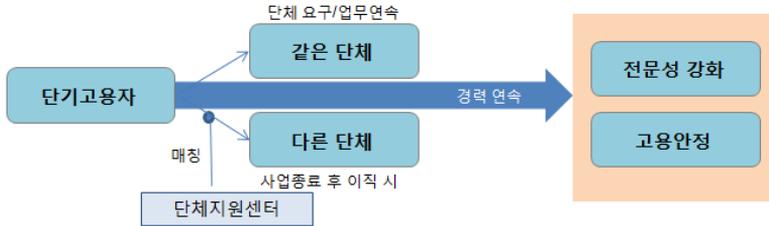
[표 1]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방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구분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방해 요인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경영의식 결여 ○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
개선/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특성화 ○ 자구책 마련 방안 계획 ○ 인력구조 문제 개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정책 정체성 확립 ○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원정책 ○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

6. 일자리 창출 방안

- 단체 경영에 대한 인식 강화, 고용 안정화 및 인력 전문성 강화, 시장 개척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교육을 통한 단체의 경영 마인드 확립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단체의 모습 구축 유도
 - 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저해 하는 예술단체의 고용 특성

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및 공연예술계에 팽배한 단기고용자의 인력풀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체계 재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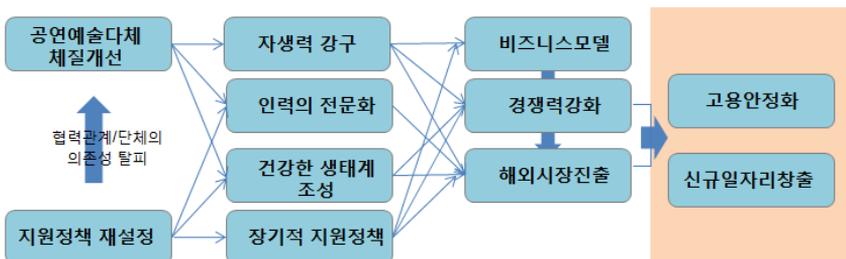


[그림 1] 인력활용과 고용안정

- 창조경제시대의 공연예술생태계 융복합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

7. 정책 방안 세부전략

-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연예술법인·단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원정책/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토대로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실천전략의 관계도

제1장 서론	1
제1절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5
1. 연구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공연예술법인·단체 현황 및 지원정책	7
제1절	9
1. 공연예술단체 현황	9
2. 국내 예술시장의 일자리 특성	16
제2절	19
1. 공연예술 지원정책 및 사업	19
제3장 공연단체 및 전문가 조사	37
제1절	39
1. 조사개요	39
2. 조사결과	40
제2절	53
1. 조사개요	53
2. 조사결과	56
제3절	74
1. 지원정책/사업적 측면	74
2. 법인/단체적 측면	75
3. 시사점	77

제4장 정책방안	79
제1절	81
1.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SWOT	81
2. SWOT 분석에 따른 대응정책	83
제2절	85
1. 기본방향	85
2. 추진전략	86
제3절	87
1. 공연예술법인·단체 체질개선	87
2.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방향 재설정	91
3. 공연예술단체 간 건강한 생태계조성	94
4. 일자리 창출 방안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부 록	 111

표 차례

〈표 2-1〉 공연단체 일반 현황9

〈표 2-2〉 전문예술법인·단체 일반 현황11

〈표 2-3〉 공연예술분야 일반현황12

〈표 2-4〉 전문공연법인·단체의 장르별 일반 현황13

〈표 2-5〉 공연단체 공연실적 현황14

〈표 2-6〉 분야별 100만 원 이하 문화예술인 비율16

〈표 2-7〉 새 정부의 문화정책20

〈표 2-8〉 공공지원정책의 특징 비교24

〈표 2-9〉 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25

〈표 2-10〉 사업 방법론적 지원의 형태26

〈표 2-11〉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 주요내용34

〈표 3-1〉 법인 및 단체 심층면접 조사대상39

〈표 3-2〉 집단면담 조사개요40

〈표 3-3〉 운영현황 및 인력구성41

〈표 3-4〉 2012년 기준 총 수입/지출 현황41

〈표 3-5〉 연간 창작 작품 및 공연횟수42

〈표 3-6〉 홍보 방법43

〈표 3-7〉 법인/단체의 경쟁력44

〈표 3-8〉 법인/단체의 자구책 방안45

〈표 3-9〉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가 높은 지원 정책46

〈표 3-10〉 지원정책에 따르는 애로사항47

〈표 3-11〉 인력 근로조건48

〈표 3-12〉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대/일자리 창출 효과 및 제안사항49

〈표 3-13〉 조사개요53

〈표 4-1〉 대내외적 환경 SWOT82

〈표 4-2〉 STOW 대응방안84

〈표 4-3〉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외 수익 창출 방안 사례8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주요 과정도	6
[그림 2-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분야별 인력 현황	14
[그림 2-2] 전문공연예술단체 수입 지출 현황	15
[그림 2-3] 공공지원정책의 변화양상	21
[그림 2-4] 현재의 공공지원 문화정책의 전략: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자생력 ..	22
[그림 2-5]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23
[그림 2-6]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융합 일자리 창출 매커니즘	35
[그림 3-1] 응답자 일반 현황	57
[그림 3-2]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 세부 일반 현황	58
[그림 3-3]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59
[그림 3-4] 공연예술법인/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60
[그림 3-5]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가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	61
[그림 3-6] 정부의 지원과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의 관계에 대한 생각 ..	63
[그림 3-7] 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	64
[그림 3-8]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지원사업	65
[그림 3-9]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66
[그림 3-10] 정책 결정에서 공연예술계의 의사 반영도	67
[그림 3-11] 공연예술 지원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68
[그림 3-12]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69
[그림 3-13]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부문 ..	70
[그림 3-14] 공연예술분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	71
[그림 3-15] 공연예술단체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72
[그림 3-16]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	73
[그림 4-1] 기본 방향	85
[그림 4-2] 추진전략 상세도	86
[그림 4-3] 실천전략의 관계도	87
[그림 4-4] 유럽형 지원제도 VS. 미국형 지원제도	91

[그림 4-5] 공연예술지원정책의 기대효과92
[그림 4-6] 직접지원의 단계화93
[그림 4-7]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도98
[그림 4-8] 공연예술지원센터의 중심 거점화101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고용악화로 공연예술시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있음
- 최근 일부 뮤지컬, 오페라, 연극 공연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협소한 공연시장, 높은 공연장 임대료,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단체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미비 등을 이유로 공연예술단체가 자생력을 높여 스스로 일자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2012 공연예술경기동향조사(상반기)에 따르면 뮤지컬은 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공연들이 2-3편 나오면서 시장 확대 이끌고 있음¹⁾
 - 특히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도약상태에 접어든 뮤지컬은 현재 2500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1조원까지 규모 확대가 가능함²⁾
- 특히 K-POP를 중심으로 하는 한류열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예술인의 고용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 시키는 것이 보다 절실한 과제임
 -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인력 수는 1,112명으로 전체 직종 종사자의 4.7%이며, 고용상태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비율은 2003년 92.3%에서 2009년 76.3%로 점차 낮아지고, 무직비율은 2003년 7.5%에서 2009년 23.7%로 높아지고 있음

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공연예술경기동향조사, 2012.8

2) 엠뮤지컬아트 이현일회장 인터뷰, 2013.5.

- <2009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 및 축제 종사자는 전체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2.8-3.7%에 차지(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와 공연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포함)
- 그러므로 창조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된 문화예술인의 고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함

2. 연구목적

-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및 일자리 안정화방안 마련
 - 공연예술단체의 공공 의존율을 낮추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공연예술인의 일자리 안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창조경제시대 대응한 공연예술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공연예술단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도출
 - 기존 공연예술의 틀을 벗어나 교육,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새로운 영역 및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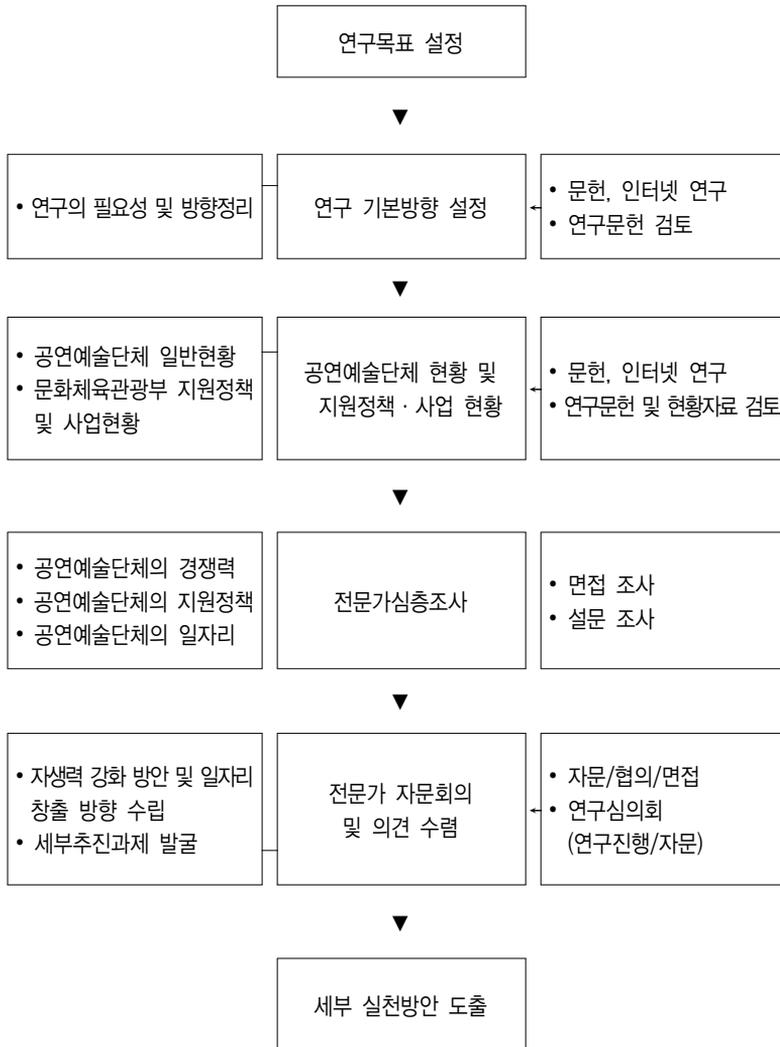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 및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함
 - 공연예술단체 현황 및 일자리 특성
 -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 방안
 -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창출 방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자료 및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
 - 공연단체 일자리 특성 및 현황에 대한 통계/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 및 사례조사
- 공연예술단체 실태(현장) 및 수요조사
 - 대상 : 장르별, 단체성격별 분류하여 샘플조사
 - 내용 : 현장 실사 확인 및 현장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 단체운영자, 학과운영자 등 자문회의
 - 종합적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집중간담회



[그림 1-1] 연구 주요 과정도

제2장 ●●

공연예술법인·단체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공연예술단체 현황 및 일자리 특성

1. 공연예술단체 현황

1) 일반현황

- 국내 공연예술단체는 총 2,241개있으며, 설립주체별로는 민간단체(1923개, 86.9%)가 국·공립 단체 291개(13.1%)보다 많음
 - 국·공립 단체 중에서는 공립 전속 단체(광역)가 213개(9.6%)로 가장 많으며, 공립전속단체(기초)는 15개(0.7%)로 나타남
- 공연예술단체 장르는 양악공연단체(686개, 31.0%), 연극공연단체(626개, 28.3%)가 많으며, 두 장르 단체는 전체 공연예술단체의 59.3%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1,358개(61.3%)의 공연예술단체가 있음
 - 서울에 가장 많은 985개(44.5%) 단체가 있고, 제주도에 24개(1.1%)로 가장 적은 수의 단체가 있음

〈표 2-1〉 공연단체 일반 현황

구분	분류	단체 수(개)		비율(%)		
설립주체별	국·공립단체	국립전속단체	63	291	2.9	13.1
		공립 전속단체 (광역)	213		9.6	
		공립 전속단체 (기초)	15		0.7	
	민간단체	1,923		86.9		
주요 활동 장르	연극	626		28.3		
	무용	395		17.8		
주요 활동 장르	양악	686		31.0		
	국악	361		16.3		
	복합	146		6.6		

구분	분류	단체 수(개)	비율(%)
지역 1	수도권	1,358	61.3
	비수도권	850	38.4
	모름/무응답	6	0.3
지역 2	특별/광역시	1,452	65.6
	광역시도	756	34.1
	모름/무응답	6	0.3
지역 3	서울	985	44.5
	부산	156	7.0
	대구	80	3.6
	인천	66	3.0
	광주	67	3.0
	대전	65	2.9
	울산	33	1.5
	경기	307	13.9
	강원	82	3.7
	충북	45	2.0
	충남	39	1.8
	전북	81	3.7
	전남	39	1.8
	경북	58	2.6
	경남	81	3.7
	제주	24	1.1
	모름/무응답	6	0.3
총		2,214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2),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재구성

2)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13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597개임
 - 지정 유형별 현황으로는 전문예술 법인 350개(59%), 전문예술 단체 247개(41.2%)임
- 법적 유형³⁾으로는 임의단체가 351개(58.8%)로 가장 많으며, 사단법인 151개(25.3%), 재단법인 61개(10.2%), 마지막으로 주식회사가 33개

3)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일 경우 위탁 경영 하는 사례 및 민영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설립 주체별(국·공립단체, 민간단체)로는 조사하지 않고 법적유형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5.5%)로 지정됨

- 활동하는 사업 유형으로는 공연예술분야가 507개로 84.8%를 차지하며, 지역권별로는 서울권(187개, 31.3%)과 경북권(153개, 25.6%)에 절반 이상의 단체들이 밀집되어있으며, 제주권(9개, 1.5%)에 제일 적은 수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일 지역별로 보면 서울(175개, 29.3%)이 단체가 가장 많고, 충남과 대전이 각각 5개(0.8%)씩 가장 적게 단체를 지정/운영함

〈표 2-2〉 전문예술법인·단체 일반 현황

구분	분류	단체 수(개)		비율(%)		
지정유형	전문예술법인	250		41.9		
	전문예술단체	347		58.1		
법적유형	임의단체	347		58.1		
	사단법인	155		26.0		
	재단법인	62		10.4		
	상법인(주식회사)	33		5.5		
활동유형	공연예술분야	507		84.9		
	전시예술분야	40		6.7		
	종합/기타	50		8.4		
지역	서울권	문화체육관광부	12	187	2.0	31.3
		서울시	175		29.3	
	경기권	인천광역시	21	88	3.5	14.7
		경기도	67		11.2	
	강원도	강원도	39		6.5	
	충청권	대전광역시	5	26	0.8	3.3
		충청북도	16		2.7	
		충청남도	5		0.8	
	전라권	광주광역시	43	95	7.2	15.9
		전라북도	31		5.2	
		전라남도	21		3.5	
	경상권	대구광역시	44	153	7.4	25.6

구분	분류	단체 수(개)	비율(%)
	부산광역시	46	7.7
	울산광역시	10	1.7
	경상북도	13	2.2
	경상남도	40	6.7
	제주권	제주도	9
총		597	100

3) 전문문화예술법인/단체의 공연예술분야 현황

① 일반현황

- 전문 문화예술법인/단체의 공연예술분야는 공연단체 및 기타(공연장 운영단체, 축제, 공연기획협회, 기타)로 세분화 가능함
 - 순수 공연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83.2%로 총 422개가 지정됨

〈표 2-3〉 공연예술분야 일반현황

	분류	단체 수(개)	백분율(%)
공연예술분야	공연단체	422	83.2
	기타 (공연장운영단체 및 기타)	85	16.8
	총	507	100

- 장르별로는 음악공연법인/단체(140개, 33.2%), 연극(134개, 31.7%), 전통예술(108개, 25.6%), 무용법인·단체(40개, 9.5%)가 지정됨
 - 장르마다 임의단체(민간단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연극공연법인/단체의 임의단체 비율(79.1%)이 가장 높음
 - 전통예술법인/단체는 사단법인의 백분율(31.5%)이 타 장르에 비해 가장 높으며 재단법인이나 상법인으로 지정된 법인/단체는 없음

〈표 2-4〉 전문공연법인·단체의 장르별 일반 현황

	장르별 분류	갯수	비율(%)	분류	갯수	비율(%)
공 연 단 체	연극	134	31.7	임의단체	106	79.1
				사단법인	15	11.2
				재단법인	4	3.0
				상법인(주식회사)	9	6.7
				총	134	100
	무용	40	9.5	임의단체	31	77.5
				사단법인	6	15
				재단법인	3	7.5
				상법인(주식회사)	0	0
				총	40	100
	음악	140	33.2	임의단체	81	57.9
				사단법인	44	31.4
				재단법인	8	5.7
				상법인(주식회사)	7	5
				총	140	100
	전통예술	108	25.6	임의단체	74	68.5
				사단법인	34	31.5
				재단법인	0	0
				상법인(주식회사)	0	0
				총	108	100
총	총	422	100			

자료: (재)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참고

② 공연실적 현황

- 2010년도 전문공연예술법인/단체의 공연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공연건수 10건, 평균 공연일수 약 56일, 평균 공연회수 약 62회, 평균 관객수 약 16630으로 나타남
- 공연예술단체의 공연형태는 행사참가 및 초청공연의 형태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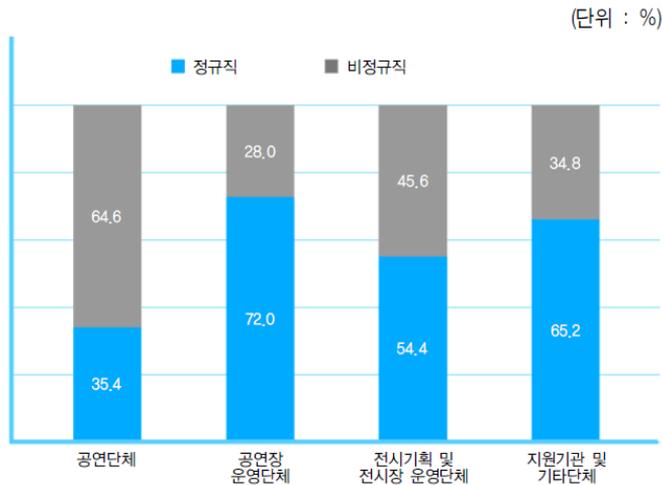
〈표 2-5〉 공연단체 공연실적 현황

구분	응답 수 (개)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수		
		합계 (건)	평균 (건)	비율 (%)	합계 (건)	평균 (건)	비율 (%)	합계 (건)	평균 (건)	비율 (%)	합계 (건)	평균 (건)	비율 (%)
전체	254	2,542	10.0	100.0	14,256	56.1	100.0	15,856	62.4	100.0	4,224,193	16,630.7	100.0
자체기획/제작	232	849	3.7	33.4	8,027	34.6	56.3	10,770	46.4	67.9	1,846,343	7,958.4	43.7
공동기획/제작	139	427	3.1	16.8	2,682	19.3	18.8	2,423	17.4	15.3	599,941	4316.1	14.2
행사참가 및 초청공연	206	1,266	6.1	49.8	3,547	17.2	24.9	2,663	12.9	16.8	1,777,909	8,630.6	42.1

2011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표 31 인용

③ 공연단체 인력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공연단체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35.4%, 비정규직 64.6%로 공연장 운영단체,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지원기관 및 기타 단체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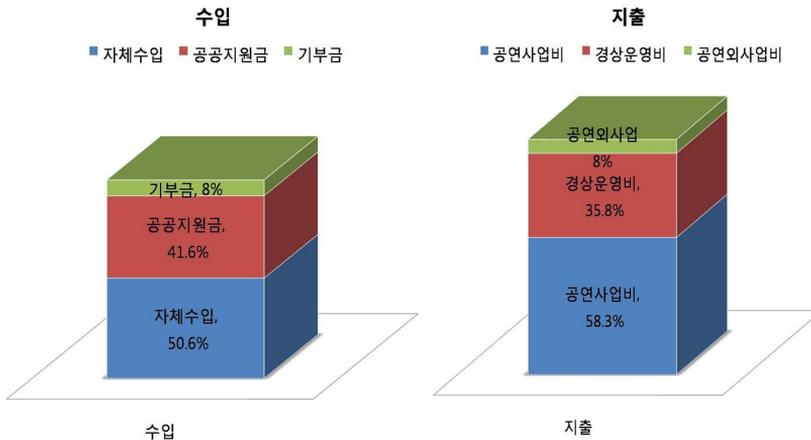


[그림 2-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분야별 인력 현황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그림 25 인용

④ 공연단체의 총 수입·지출 현황

-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⁴⁾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342개의 공연단체의 평균 수입 총액은 5,41,016,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체수입 50.6%, 공공지원금 41.6%, 기부금 8.0%의 비율로 구성됨
- 전문공연예술단체의 평균 지출 총액은 577,015,000원으로 공연사업비로 58.3%, 공연이외 사업비 5.9%, 경상운영비 비율이 35.8%로 나타남



[그림 2-2] 전문공연예술단체 수입 지출 현황

⑤ 공연예술인의 급여현황

- 공연예술인의 급여현황은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⁵⁾>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이며, 분야별로 연극(74%), 국악(67%), 무용(64%), 음악(60%)의 비율로 나타남
- 국악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의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4)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2011년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5)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각 200명씩 총 2,000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실태를 조사함

2009년 실태조사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인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어가는 것으로 파악됨

〈표 2-6〉 분야별 100만 원 이하 문화예술인 비율

	연극	국악	무용	음악
2009년	72.5%	75.5%	38%	49.5%
2011년	74%	67%	64%	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재구성

2. 국내 예술시장의 일자리 특성

1) 예술노동시장의 특징

- 문화예술분야의 노동시장은 창작을 통한 새로운 활동 영역의 경제활동과 직업의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개념과는 다름⁶⁾
- 예술노동시장의 특징은 크게 프로젝트단위의 고용(단기고용), 저임금 고전문성(경력에 따른 임금책정이 아닌 스타와 비스타로서의 임금 책정 및 격차), 높은 업무 만족도(저임금, 불안한 고용안정성에도 높은 업무 만족감과 낮은 이직율) 등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함

① 단기고용

- 예술노동시장은 주관적인 경험재 상품으로 사전 만족도 예측이 불가능하며,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상품의 성공이 불확실하므로 고정비용 최소화 경향이 유인됨(김미현 2009, 허은영 2010, 재인용)
- 또한, 성공 불확실성에 대비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이 이루어짐 (안주엽 외 2005, 허은영 2010, 재인용)

6) 김효정, 2011- 정부고용지원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고용정책방안

○ 프로젝트단위 고용은 일반적으로 조직 몰입도 저하, 팀워크나 집단 생산성 저하, 업무단절 및 비효율, 교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만(김준영, 2009) 예술분야에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작품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품 성패의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장르에 따라 창작물의 질 향상 요인이 되는 장점이 되기도 함 (김미현 2009, 허은영 2010 재인용)

② 저임금 고전문성

○ 높은 보수를 받는 재능 있는 소수의 성공한 예술가(혹은 슈퍼스타)와 전반적으로 낮은 보수의 임금을 받는 전문적인 인력의 수입 격차가 큰 편임 (김준영 2009, 허은영 2010, 재인용)

③ 높은 업무 만족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문화기관 근무자의 직무인식 조사⁷⁾>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근로자들의 직무인식 특징을 알아보면 문화예술단체 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박물관 근무자들 다음으로 높은 편임(62.8%가 만족, 6.7%가 불만족)

- 반면 근무여건 평가 항목 중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 항목이 타 기관 근로자에 비해 만족도가 제일 낮았음(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소득은 2.4, 고용의 안정성은 2.8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임)

○ 문화예술단체 근로자들은 자아성취·보람 때문에 직장을 선택한 경우가 매우 많음

- 타 기관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에 반해 문화예술단체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을 보고 선택한 경우가 매우 적음

- 근무여건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의 만족도가 높아 조사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9.28.), "월급 적지만 업무내용 만족한다"-문화복지 대국민 서비스 담당자 직무인식 조사, 보도자료

-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예술단체(주로 공연예술단체) 7개 분야의 국내 문화시설·문화단체 근무자 총 1843명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비교함

기관 근로자들 중 이직의향이 가장 적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직무인식 조사를 통해 종사자들의 높은 업무내용 만족감과 낮은 이직욕구를 확인하였으나 근무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통해 업무여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그외 예술노동시장 인력들은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경제적 보상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예술가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Benhamou 2003, 허은영 2010, 재인용)

제2절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현황

1. 공연예술 지원정책 및 사업

1) 공연예술 지원정책

- ①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 2013년 현 정부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제시함
 - 이에 문화재정 2%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등의 세부 국정과제가 수립됨
 - 지역화 전략에 기반한 현 정부의 문화정책들은 기존의 공급형 문화가 아닌 문화 향유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새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술인의 생활 안정화, 예술단체 균형적 지원 및 창작물의 질 향상을 위한 창작지원의 정책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생활 기반 조성으로 창작물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지원
 - 정부의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 및 법률 제정 등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한 기부 활성화
 - 지원 수혜 단체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의 비영리 법인화 도입 및 비주류 단체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지원
 - 마지막으로 예술인과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거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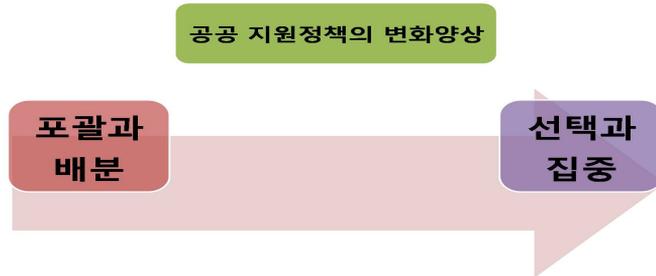
〈표 2-7〉 새 정부의 문화정책¹⁾

국정 목표	추진 전략	국정과제	세부내용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 기본법 제정	문화재정 2.0%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등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을 균형있게 확충
			국민행복, 사회통합,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2013년 제정안 발의)
			여가활성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메세나법)등 연계법안 제정 추진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 예술인 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조세지원 강화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인디· 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 법인제도 도입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CT 5대 핵심기술 개발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음악 창작자의 권익 광화를 위해 음원전송사용료제 개선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공연장·박물관·경기장 등 할인·면제 청소년 패스 도입
예술강사 장애인 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참고: 공연예술분야 관련 과제 중심으로 재편집

② 공연예술 지원정책 변화 양상

- 최근 공연예술지원정책은 과거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인 포괄과 배분에서 벗어나 2006년 이후부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장의 자생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과거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포괄과 배분
 - 2006년 이후 지원정책: 선택과 집중, 시장의 자생력



[그림 2-3] 공공지원정책의 변화양상

- 이는 문화예술부문의 공공지원정책의 변화양상은 질보다 양, 양보다 질이라는 패러다임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⁸⁾
- 포괄과 배분은 ‘보다 많은’ 단체나 작품에 지원하는 전략으로서 작품중심의 재정적 지원이 중심이었으며, 이는 공연예술 작품의 양적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공연장 부족 문제와 공공지원에만 의존하는 공연작품이 생겨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함
-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잘 하고자 하는’ 예술가나 단체를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함⁹⁾
 - 2006년부터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예술전문단체 육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6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확대 전환됨
- 기존의 포괄과 배분위주의 과거의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 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와 함께 <예술지원 4대 원칙>을 발표함
 - 예술지원 4대 원칙 :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8) 박상언(2012.02.06.), ‘선택과 집중’이나 ‘포괄과 배분’냐, 칼럼, 충청투데이, 20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623>

9) 양효석(2010),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예술경영연구, 2010, 제 17집

- 점차 단발성 다건 지원방식에서 다년간 집중 지원방식으로, 직접지원에서 공연장과 연계된 간접지원방식으로, 재정적 지원 이외에 법제도 개선 및 경영 컨설팅 등 기반을 다지는 정책 개발 등 지원 정책이 다방면으로 변화함
- 이후 정부는 <예술지원 4대원칙>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술 단체의 역량을 다년간 지원하여 각 단체들을 자생력을 갖춘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는 단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음
 - 경쟁력 있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 구조에 맞추어진 창작 공간의 추진과 다양한 인프라 마련, 생태성에 기반을 둔 지원방식의 변환 등이 요구됨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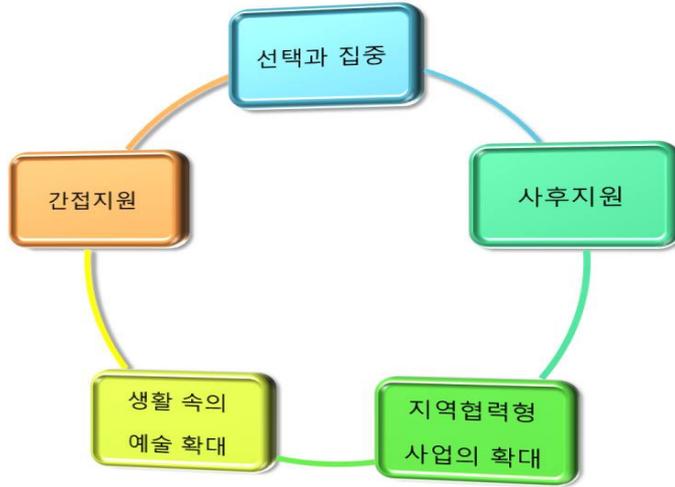


[그림 2-4] 현재의 공공지원 문화정책의 전략: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자생력

- 또한 지역별 특성화가 필요한 사업들은 중앙(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원방식에서 지역(시, 도 혹은 지역 문화재단) 펀드 매칭 방식을 통해 지역단위의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감
 -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문제 개선과 함께 문화예산 확충 등을 통해 지원 규모가 확대됨¹¹⁾

10) 라도삼(2010), 문화예술정책의 미래, 미래의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3 No.2

11) 정광렬(2010),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0-39



[그림 2-5]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 〈포괄과 배분〉, 〈선택과 집중〉 두 지원정책 방식에는 각기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포괄과 배분 정책은 단발성 다작품의 소액지원 나눠먹기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우려됨
 - 선택과 집중 정책은 적은 단체의 다년간 집중 투자방식으로 인해 단체 선정 시 공정성 시비 등 정치적 부담이 크며, 소수의 선정된 단체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해 일반 대중의 예술 창작·향수활동 참여가 위축 될 우려가 있음¹²⁾
- 그럼에도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은 결국 한 단체만 강화시키기 위한 몰아 주기식 지원이 아닌 ‘잘 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재정적 어려움 해소함으로써 공연 콘텐츠 질의 향상을 유도하며 제도적 지원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함

12) 박상연(2012.02.06.), ‘선택과 집중’이나 ‘포괄과 배분’냐, 칼럼, 충청투데이, 20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623>

- 아울러 질 좋은 콘텐츠로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해 갈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표 2-8〉 공공지원정책의 특징 비교

공공지원정책	포괄과 배분	선택과 집중
특징	질보다 양 (보다 많은 '작품' 의 양산)	양보다 질 (보다 잘하는 '단체' 의 역량 강화)
제도/정책/사업	배분위주의 지원 지원심의 제도 작품중심주의 지원	예술지원 4대 원칙 - 선택과 집중 - 간접지원 - 사후지원 - 생화속의 예술 활성화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지원방식	단발성 다작품 지원방식 (소액 다건의 무차별적 지원)	다년간 집중 지원방식 (다액 소건의 차별적 지원)
문제점	소액 다건의 무차별적 지원으로 하향평 준화 우려	단체 선정의 공정성 시비 일반 대중의 예술 창작·향수활동 위축 우려

2) 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

-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및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 가능함
 - 단체의 콘텐츠(프로그램 및 사업)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한 창작물 제작 지원 위주의 지원 사업
 -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단체의 조직형태(법인, 기업 등 구축)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
- ① 단체의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운영 지원
- 단체의 창작물 제작 등을 위한 사업지원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정부 및 지역 문화재단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 및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사업 대부분은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자체 공연을 통한 단체 운영 지원

사업이며, 점차 해외교류를 위한 사업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임

〈표 2-9〉 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목적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공간 확보 및 공연장의 공연 프로그램 확보
서울아트마켓 ARKO-PAMS 협력사업지원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펌스 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유통 활성화와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공연예술행사 개최 지원	장르별로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에 공연 기회 제공
공연예술창작자금 지원	우수 공연단체 선정을 통해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세계적인 거점 또는 계기를 활용하는 국제교류 중기 기획프로젝트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지원함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선정자의 역량강화와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을 통해 미래 한국 공연예술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사업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 중심의 공연예술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도모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술위원회 지원금액 대비 1:1이상 지역예산 매칭을 기본으로 함

② 단체 조직의 구조화 지원

- 정부는 단체의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지원 이외에도 공연예술단체들이 조직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표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임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예술단체들이 제도적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하여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2-10〉 사업 방법론적 지원의 형태

분류	형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¹³⁾	문화법인화 ¹⁴⁾
정의	- 공연예술단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비영리 법인화 유도 및 그에 준하는 세제 혜택 및 여러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	-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 추구 및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류정아, 2011, p.27)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국제협동조합연맹, 1995)	문화법인 제도는 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문화법인제도 도입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함 (도입예정중)
법제도	- 문화예술진흥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효과	- 세제혜택 및 기부금 활성화 유도를 통한 단체의 재원 다양화	- 고용노동성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통한 단체의 자생력 강화	- 설립이 용이하며 명칭에서 오는 공공적인 이미지, 그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 문화예술단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 단체 관리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민간기부의 활성화 유도
단점	- 국내에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짐	- 문화예술분야의 근로예술형태가 적절히 반영된 수정된 규정의 필요성 인식	-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제도 창출의 필요성이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비영리 법인이나 법인화가 힘든 임의단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공연예술단체들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비영리 법인화 유도 및 그에 준하는 세제혜택 및 여러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에 법적 근거를 둠

13) 허은영(2012),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허은영(2012), 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5]

- 2000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로 지정받아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중임
 - 2001년 약 22개정도이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013년 8월 기준) 총 610개가 지정되었음
- 지정 혜택사항으로는 기부금 모집 허용,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필요경비)인정,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의 혜택이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으로 인한 직접 지원금지원제도가 아니라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에 자격을 부여 해 주는 간접적 지원 제도로 단체의 회계결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우리나라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재원 마련은 아직 사회적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낮설고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기부금 모금 관련 전문 인력이 드물어 현실적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혜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¹⁵⁾
 - 허은영(2011)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층연구>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세제 혜택 강화, 모금액량 강화, 모금 성공사례 공유, 회계 기준 정립,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 방안 및 지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함

□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근거로 2006년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시작됨
 -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 개념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¹⁶⁾”으로 정의 됨
- 2009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관련 업무 협약(MOU) 체결하며 문화예술이 지닌 공공성과 사회적 실현과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15) 허은영(2011)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층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1·24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20조를 근거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설립된 기관

- 류정아(2011)¹⁷⁾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 추구 및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
- 공연예술단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며, 50여개의 공연예술단체를 선정, 각 단체별 10명 내외의 인력의 고용비용을 지원하기로 함
- 2011년 5월, 고용노동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지원기관으로 선정함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 2007년 3개의 문화/예술/관광/운동분야의 사회적기업에서 시작하여 현재 (2013년 3월 기준) 138개의 기업이 인증 받았으나(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총 801개 중 약 17%정도 차지)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율성 저하 및 문제점들이 나타남

- 류정아(2011)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은 자생력 부재, 전

17) 류정아(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인력 부족과 인건비 지급 기준의 문제, 분류 기준의 모호성, 및 문화 예술분야에 맞춘 법과 정책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에 맞는 지원체계 수립,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사회적 기업 성과 평가 모델 개발 및 경영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함¹⁸⁾

□ 협동조합

-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인격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 정의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18) 류정아(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재단연구원

-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나뉘며, 시도지사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해 비교적 어려움이 있음
 -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을 할 수 있어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비해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면서도 명칭에서는 공공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은 공연예술계에서 단체에 소속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원이 공동의 의무와 책임으로 함께 단체를 운영하는 동인제적인 성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공연예술계에서의 협동조합은 단원이 출자하여 공동운영하며 지원금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운영 형태의 유도를 기대함¹⁹⁾

19) 허은영(2012).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연구원

□ 비영리 문화 법인 제도

- 법인허가가 쉽지 않은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하여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법인제도 도입을 통하여 개선 하고자 함
- 허은영(2012)의 <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법인제도의 조작적 정의는 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사회적기업 제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처럼 법인격과 관계 없이 지정·인증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와는 다름
- 비영리 문화 법인제도의 장점으로는 조직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조직의 항구적인 목표 설립과 실현이 가능하고, 법인채무로부터 대표자, 사원 및 법인과 거래하는 제 3자까지 보호 가능해짐²⁰⁾
 -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 단체 관리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민간기부의 활성화 유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함

3)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정체상태에 있는 고용률을 올려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38만개의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함 (2013년 6월)
 -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20) 허은영(2012). 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2-11〉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 주요내용

추진 전략	단위 과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업활성화 - 신직업·신산업 발굴·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서비스 산업 선진화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일하는 방식 및 근로시간 개혁	- 장시간 근로 개선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유연근무 확산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 장년을 위한 더 오래 일하기 - 장애인을 위한 차별없이 함께 일하기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 질 제고 - 일자리 창출의 책임성 강화 -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자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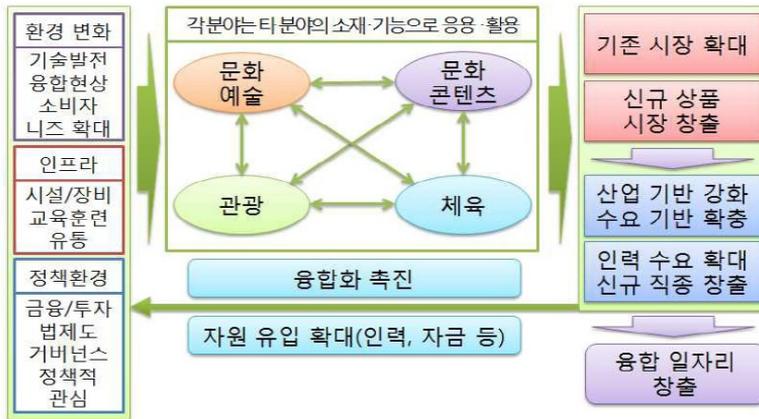
○ 특히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이 크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고성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다량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인 인재 양성 및 배치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²¹⁾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가 전 산업 평균 8.3명인 것에 반해 콘텐츠 산업 12.1명, 문화서비스 12.6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또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식문화사업(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관광 등)의 10조원의 대규모 초기투자는 관련분야에서 매년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제조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2013.2), 이수총론 창조경제시대 일자리 창출의 보물창고, 문화체육관광, 박광무

업 일자리의 증가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예측함²²⁾

- 이용관(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창조경제시대 융합형 일자리의 보고로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본질적인 감성과 경험을 중요시 하는 경향의 대두로 인해 예술과 산업의 융합과 그로인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 기반의 마련은 인력 수요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결국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아래와 같은 구조의 융합형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함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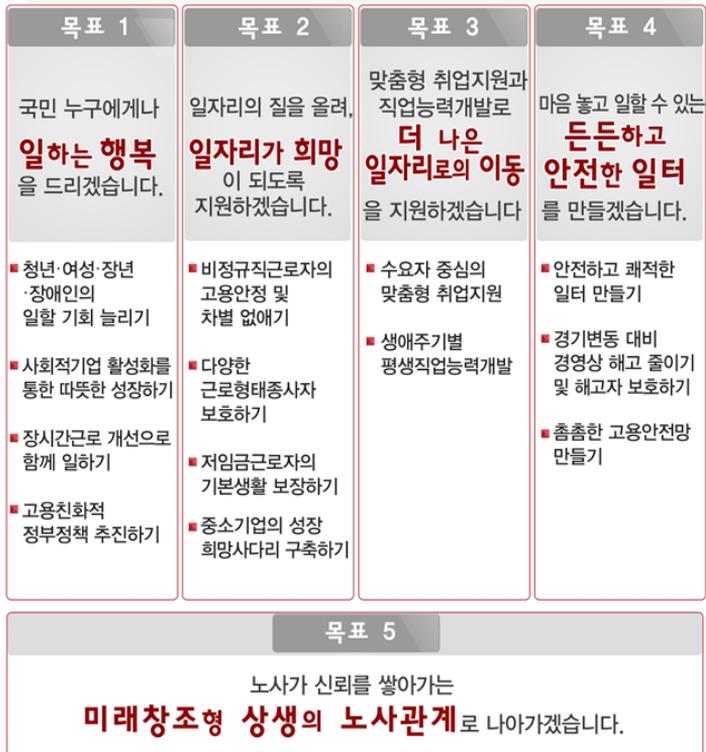
[그림 2-6]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융합 일자리 창출 매커니즘

자료출처: 이용관(2013.01),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융합형 일자리 창출. KCTI 가치와 전망, 제 13호(2013-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 매일경제(2013.1.16.), 차정부, 지식문화 10조 '마중물 투자'...일자리 年 45만개

23) 이용관(2013.01),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융합형 일자리 창출. KCTI 가치와 전망, 제 13호(2013-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7&sec=1>

제3장 ●●

공연단체 및 전문가 조사



제1절

공연단체 및 전문가 심층면담 조사

1. 조사개요

- 2013년 5월 28일부터 2013년 6월 14일 까지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에서 지원 수혜 경험이 있거나 현재까지 받고 있는 8개의 국/공립 혹은 민간 공연예술법인/단체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과 핵심 집단면담을 진행함
- 법인 및 단체는 단체의 일반 현황,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질문들을 심층면접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3-1〉 법인 및 단체 심층면접 조사대상

단체	장르	지역
A 민간단체	전통예술	서울
B 민간단체	전통예술	목포
C 민간단체	음악	전주
D 사회적기업	연극	대구
E 주식회사	연극	대구
F 협동조합	연극(년버벌퍼포먼스)	서울
G 재단법인	연극	서울
H 재단법인	전통예술	서울

- 전문가는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전문가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정책 방안 등에 대하여 집단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형태로 진행함

- 대상자는 공연예술분야에서 각 소속 분야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 사업 기관 담당자(지역 도청 문화예술과 공무원 및 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정책 대상자(단체), 민간 공연장 기획팀 담당자 및 극장 경영 및 예술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
- 조사내용은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및 사업, 공연예술분야의 일자리 등에 치중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의 시각에서 보는 각 주제에 관한 총괄적인 견해를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형식으로 면담 진행

〈표 3-2〉 집단면담 조사개요

구분	내용
대상	· 지원정책 사업 기관 담당자, 정책 대상자, 민간 공연장 담당자, 학계 교수
방법	· 핵심집단면담조사
내용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및 사업
	·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 창출

2. 조사결과

가. 공연단체

1) 일반현황

① 운영현황 및 인력구성

○ 심층면담 대상 단체들의 운영현황 및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창작 콘텐츠를 통한 티켓 판매 수익이 미미한 단체들은 단원의 수가 20명 내외로 구성됨
- 반면 창작 콘텐츠 경쟁력과 단체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법인/단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단원 수를 보유함

〈표 3-3〉 운영현황 및 인력구성

법인/단체	법적형태	활동장르	총인력 (명)	인력구성(명)	
				단원	지원인력
A 민간단체	임의(개인) 단체	전통예술(연희)	13	10	3
B 민간단체	임의(개인) 단체	연극(마당극)	18	14	4
C 민간단체	임의(개인) 단체	연극	7	6	1
D 사회적기업	법인(사회적기업)	전통예술	20	11	9
E 주식회사	법인(주식회사)	연극(년버벌퍼포먼스)	95	50	45
F 협동조합	법인(협동조합)	음악	15	14	1
G 재단법인	재단법인	연극	768	750	18
H 재단법인	재단법인	전통예술	159	100	59

② 수입 및 지출 현황

○ 단체들의 2012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조사함

- 개인(임의) 단체의 수입은 1억~8억 사이이며,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의 수입은 60억~84억 사이로 집계됨

〈표 3-4〉 2012년 기준 총 수입/지출 현황

법인/ 단체	총 수입/지출 금액	총 수입(100%)			총 지출(100%)		
		공연사업 수입 (티켓판매%)	사업 지원금	기타 수입	공연 사업비	경상 운영비	기타 지출
A 민간단체	약 4억	40%(5%)	60%	-	60%	40%	-
B 민간단체	약 8억	80%(0.1%)	15%	5%	10%	90% (단원포함)	-
C 민간단체	약 1억 5천	30%	70%	-	65%	35%	-
D 사회적기업	약 4억	75%	25%	-	10%	80%	10%
E 주식회사	약 78억	95%	-	5%	50%	30%	-
F 협동조합	약 1억 2천	20%	80%	-	70%	30%	-
G 재단법인	약 64억/ 약 60억	16%(7%)	84%	-	58%	29%	13%
H 재단법인	약 89억 /약 84억	30%	70%	-	49%	51%	-

- 재단법인을 제외한 단체들의 대부분이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단체에 재투자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예상하게 함

③ 공연 기획 현황

- 단체 별 2012년 한 해 동안의 창작 작품 건 수, 공연일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및 공연을 통해 얻어진 수입은 아래 표와 같음
 - 조사한 법인·단체들은 연간 1건 이상의 창작공연 기획·제작
 - 음악단체를 제외하고는 연간 100일 이상 100회 이상의 공연 실시
 - 관람객 수는 공연장의 객석 수 및 공연 횟수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상설 공연을 하는 법인의 관람객수가 일반 단체들보다 많음
 - 재단법인 포함한 공연예술 법인/단체들의 티켓판매수익은 1년 총 수입의 0.1%~5%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며, 단체들 평균적으로 수입의 50% 정도가 직/간접적 공연예술 지원 사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등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표 3-5〉 연간 창작 작품 및 공연횟수

법인/단체	기획/제작 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람객수	공연수입
A 민간단체	1	100	110	약 7만명	1억 5천
B 민간단체	1	150	150	4만 5천명	4억 5천
C 민간단체	3	180	200	5000명	5천만원
D 사회적기업	2	180	180	약 3만명	3억
E 주식회사	1	365	900	30만명	78억
F 협동조합	6	58	58	1만6천명	약 600만원
G 재단법인	21	310	320	약6만5천명	4억3천
H 재단법인	1	313	937	18만7천명	27억

④ 홍보 방법

- 공연예술단체의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많은 단체들의 온라인/SNS 홍보를 많이 이용하고, 입소문에 의한 홍보에 의존함
 - 민간단체들은 공모사업 선정으로도 홍보의 효과 및 공연 출연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응답함

-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연법인/단체들은 비용을 들여 홍보에 힘을 쓰는 반면 일반 개인단체들은 예산상 무료 홍보 방안을 선호함

〈표 3-6〉 홍보 방법

법인/단체	방법 1	방법2	방법3	방법4
A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선정	언론 홍보	온라인/SNS 홍보(웹진)	아트마켓 참여
B 민간단체	공익사업, 기획을 통해 홍보	언론홍보	SNS회원홍보	-
C 민간단체	TV광고./언론홍보	온라인 홍보	인쇄물	-
D 사회적기업	회원 우편물 홍보	공모사업 지원 선정	타 매장 제휴	지역 라디오 티켓 협찬
E 주식회사	광고홍보	온라인 제휴	온라인 예매 사이트 할인 및 이벤트	-
F 협동조합	무료 행사 참가	인맥	-	-
G 재단법인	온라인홍보	전광판홍보	버스광고	SNS홍보
H 재단법인	해외시장홍보	여행사 상품 구성	공항/국내 전광판광고	-

2) 경쟁력

① 법인/단체의 경쟁력

- 법인·단체들이 생각하는 단체의 경쟁력으로는 콘텐츠의 질과 단원들의 전문성 및 뛰어난 기획력이 주를 이룸
 - 소규모 민간단체의 경우 단원간의 유대감을 단체를 지속하게 하는 경쟁력으로 생각하고, 단원의 능력이 작품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작품의 질이 단체의 경쟁력이 된다고 여김
 - 또한, 소규모 단체들의 경우 지정 공연장에서의 한 가지 브랜드 공연이 아니라 관객을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관객 맞춤형 콘텐츠/레퍼토리가 사업에 큰 경쟁력이 되고 있음

- 공연장을 보유 하고 있는 법인들의 경우 전용 공연장을 통해 상설공연 및 극장의 높은 활용이 가능하여 단체의 경쟁력이라 응답함

〈표 3-7〉 법인/단체의 경쟁력

법인/단체	경쟁력 1	경쟁력 2	경쟁력 3
A 민간단체	연희라는 장르의 유행 - 광대의 타이밍	단원간의 끈끈한 유대감 - 팀 운영에 오래가는 힘과 중심이 됨	전문성 있는 다양한 단원으로 다양한 활용력 - 사업 확장이 용이함 (창작+교육사업)
B 민간단체	단원의 생활 안정화 - 단원들 4대보험 가입 및 단원의 능력과 예술 지속을 위한 생활의 안정화	다양한 현장 응용력 - 다양한 공연 경험과 기획 경험으로 현장 프로그램까지 개발	맞춤형 작품 기획 -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 는 공연 창작/기획
C 민간단체	능력있는 연출가와 배우들 - 높은 작품 수준과 해외 진출 능력	창작 기획력 및 인적 네트워크 - 참신한 아이디어 및 다양한 시도	극단 인지도 파워 - 과거의 유명 콘텐츠 기획 극단으로 유명한 인지도
D 사회적 기업	기획인력 - 젊은 운영진의 도전정신 과 직원 4대보험 가입 및 주주 참여로 직원의 주인의 식 강화	장르를 넘어서는 인원구성 - 작곡, 전통예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의 분 야별 사업진행으로 사업 범위 가 넓어짐	공연장 건립 및 꾸준한 작품 생산 (대비성) - 지원 사업이 끊길 때를 대 비하여 극장 건립을 준비 하 고 꾸준한 작품생산을 노력함 (1년에 2~3편)
E 주식회사	Non-verbal 콘텐츠 및 차 별화된 장르 - 국적과 연령이 상관없는 관객층 형성 - 세계 최초의 콘텐츠	상설 전용 극장 - 1년 내내 공연/운영	자체 프로덕션 시스템 보유 - 무대/음향/조명 등 직접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며, 기 업 부설 창작 연구소도 함께 운영중
F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 단원들의 출자금 투자로 능동적/적극적으로 변화	다양한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 한 단원 - 높은 음악 수준	음악적 장르 파괴로 공연 장 르의 다양성 갯춤 - 축제/종교 행사 등 공연 가능한 장르가 넓어짐
G 재단법인	단원제에서 공개 오디션으 로의 변화 - 단원들의 적극성과 공연 의 질이 높아짐	연령대 별 다양한 공연내용	공연장의 다양성
H 재단법인	한국 전통예술의 가능성 과 비전을 제시 - 작품의 수요 확대	작품 기획력과 양질의 작품 창작 - 창작공연 브랜딩	꾸준한 공연/기획으로 우수단원이 많음

② 공연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 각 단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은 다음과 같음

- 법인·단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예산절감을 통한 방어적 예산 운영과 브랜드공연 개발 및 참신한 창작공연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짐
- 일부 단체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진출 노력을 함

〈표 3-8〉 법인/단체의 자구책 방안

법인/단체	자구책 1	자구책 2	자구책 3
A 민간단체	단원 개개인의 스타화/명인화	방어적 예산 운영 - 적은 투자로 큰 효과 내는 창작품 기획	
B 민간단체	기획적 예산 절감 - 단원 생활비 지원 우선 정책 - 단원 결속력 강화	기획팀의 마케팅/홍보 노력	지원사업 선정 - 남도 문화 특성으로 작품 개발
C 민간단체	해외 진출 기회 마련 등 새로운 도전의 시도 - 최초의 뮤지컬, 지역 최초의 Non-verbal 공연 시도		
D 사회적기업	창작극에 대한 투자 - 다양한 전공자 영입 - 창작극으로 인한 공연 출연료 상승효과	극장 설립 투자 - 2년전부터 사전 준비 - 수준높은 장비 사용 - 지역문화개발을 목표	
E 주식회사	R&D분야에 대한 지원 - 부설 창작연구소의 신규 콘텐츠 기획/개발	새로운 관객층 공략 - 해외/국내 관광객 유치 - SNS를 통한 관객 연구	사업 축소(Slim)화 - 비용절감 효과
F 협동조합	프로그램의 다양성 -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협동조합원으로써의 조합원의 의식변화 - 찾아가는 서비스	
G 재단법인	단원제 폐지	365일 공연 가동 및 작품수 증가 - 국립극단에 대한 신뢰도 상승	다양한 홍보 - 버스/전광판 광고 및 온라인/SNS 홍보 노력
H 재단법인	브랜드 공연개발 - 해외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전통예술의 드라마적 스토리 연출	주 12회 상설 공연 - 전용극장으로서의 기관의 이상 충족으로 관객 만족도 상승 및 수입 상승	

③ 정부 등 지원정책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 정책 중 효과가 높은 정책

○ 재단법인들은 직접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법인/단체들은 일자리 지원사업, 공연장 지원 및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간접 지원사업(청년 인턴십, 공간지원, 축제 지원, 순회공연 사업)들을 선호하는 편임

〈표 3-9〉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가 높은 지원 정책

법인/단체	정책 1	정책 2
A 민간단체	축제 지원사업 - 창작 지원으로 새로운 장르인 거리공연 연 기회의 확대	상주단체지원사업 - 재공연의 기회가 생기면서 창작물의 유통 기회 및 다양한 사업 기회 확대 -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 증가
B 민간단체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정책/사업 - 1년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의 창작/기 회 마련 및 사업 진행 가능해짐	순회공연사업 - 현장 공연의 기회가 많아단체의 프로그램 레퍼토리 다양화
C 민간단체	사후지원정책 - 집중기획사업으로 1억의 집중 투자 (콘텐츠 강화로 해외진출에 도움)	
D 사회적기업	공간지원사업 - 문화기반시설 운영으로 극장 건립이 가능하게 됨	순회공연사업 - 작품개발과 공연출연료 수입 혜택
E 주식회사	청년 인턴십 지원 - 인건비 부담 감소 및 인력 유동이 활발해짐	
F 협동조합	일자리창출사업 - 단원들의 월급 지원 및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됨	
G 재단법인	전문예술법인 - 기업 협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수익 사업이 불가능하여 혜택이 됨)	공간지원 - 극단 공간/공연장 무상임대 - 2개의 공연장의 일년내내 상시 가동 가능
H 재단법인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국가적 투자 - 기반 확충	

□ 지원정책의 애로사항

○ 지원정책의 일회성과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단체운영 및 사업의 지속성 담보 어려움

- 특히 인력지원의 경우, 단기성 인력지원이 많아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

〈표 3-10〉 지원정책에 따르는 애로사항

법인/단체	애로사항 1	애로사항 2
A 민간단체	인력지원의 경우, 일자리 창출 수치적 목적으로 신규인력만을 지원함 - 정해진 적은 지원금으로 전문 인력 고용 불가능함	단발성 사업들이 많으며, 예산 집행 시 지원금 사용 제한이 많음 - 공연예술분야 특성상 기획료가 따로 책정되어야 함
B 민간단체	순회공연사업의 경우, 공연 수혜자가 단체 공연 가능한 단체들이 수혜자와 함께 수혜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면 더 효율적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하는 실정이나, 현장성
C 민간단체	지방 단체는 지역적 차별로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기 힘들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정책/사업 필요
D 사회적기업	지원시 형식적 행정적인 인터뷰가 단체에 선정여부를 떠나 도움이 되지 않음 (공정성 문제 발생가능) - 서류를 잘 꾸며내는 팀이 선정가능성이 높음(공연시연점검 필요)	기관과 단체의 파트너쉽을 통해 함께 나가는 지원이 필요함
E 주식회사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모호한 기준으로 같은 공연을 제작하고 운영함에도 단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이 따름 -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정책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2분법적임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현장교육을 받은 인력이 부족함 - 공연예술분야에 적합한 인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인건비의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F 협동조합	지원받는 단체로써 수혜단체로서는 큰 혜택이나 지원 받는 단체의 공익성 부각이 필요함	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역단체는 선정되지 않음 - 지역 내의 단체의 질 저하가 우려됨
G 재단법인	국립극장은 국립극장 소속단만 이용가능 - 연극을 위주로 한 공간지원 필요	
H 재단법인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적은 제작비 투자로 콘텐츠 강화가 힘들 - 라스베가스 태양의 서커스 같은콘텐츠의 관광자원화가 필요함 - 큰 사업들의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필요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투자가 필요하며, 단체의 시스템 기반 확충 후 민간자본과의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함

④ 일자리 창출

□ 근로조건

- 단원과 단체의 상생을 위해 단원의 생활력 보장을 중시하는 몇몇 단체나 1년 상시 상설공연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을 제외하고는 단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힘든 실정임
 - 기획/지원인력의 경우 정규직 구성 비율이 높은 편이며, 4대 보험 지원이 많음
 - 국립극단의 경우 단원제 폐지로 인해 급여 조건을 연습기간 포함 하여 역할별/경력별로 작품별로 계약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단원들의 적극성을 높이고 공연 작품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내기도 함

〈표 3-11〉 인력 근로조건

법인/단체	단원	기획/지원인력
A 민간단체	공연 횟수에 따른 출연료 제공	월급 제공
B 민간단체	단원/지원인력 구분 없이 4대보험 가입 및 연차수당 제공 직원 장기근속 안식년 및 해외연수 지원	
C 민간단체	경력위주로 공연 출연료 제공 - 경력 있는 직원들의 고용이 출연료 인상으로 저하됨(공연 질 하락 우려)	정직원 1명
D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단원과 지원인력 모두 4대보험 가입 연차 수당 및 근로수당 제공	
E 주식회사	비상근단원-회차별/연차별 급여 Training 전문 교육과정 및 팀닥터 (Physical Training) 제공 부상 시 급여정책 및 상해보험/지정보험제도 운영	정규직 직원 4대보험
F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의 특성 상 자기 투자/배분의 형식을 가짐	
G 재단법인	기본급에 공연 회당 수당 제공 작품별 계약(역할별, 경력별 차등 급여) 상해보험	4대보험, 탄력근무제, 연봉제 (무대기술팀 및 공연 기획팀 포함)
H 재단법인	간간 상시 전용극장 전속공연으로 단원/지원인력 모두 전 직원 4대 보험 제공 및 직업 상해 보험 가입 및 연봉제 운영	

- 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증대/일자리 창출의 관계성 및 정책적 제안사항
- 많은 법인/단체들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단체의 시장 경쟁력으로 보고 있으며, 공연 활성화는 단원 및 지원인력 뿐만 아니라 조명, 음향 등의 전반적인 공연계 인력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동일한 의견을 보임
 - 일자리 정책 제안 사항으로는 공연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단원 및 지원인력의 필요성에 반해 신규 인력의 급여로 지급하는 비현실적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극장을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의 경우, 민간 공연장 운영 스텝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함

〈표 3-12〉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대/일자리 창출 효과 및 제안사항

법인/단체	고용증대/일자리 창출	제안사항
A 민간단체	기획팀의 고용증대효과는 있음 - 공연 장르의 특성상, 단원은 분야 전문인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어려움	교육사업의 경우, 너무 적은 교육 강사비로 인해 고용창출로 보기엔 비현실적임 - 경력/분야에 따른 강사비 책정 필요
B 민간단체	단체의 발전이 기획인력 및 단원의 증가로 이어짐	공적자금 지원인력은 비현실적이며, 공연예술단체로서는 제한이 많음 (분야 특성 차별화 필요)
C 민간단체	좋은 콘텐츠가 경쟁력이 되어 시장 성공시, 수익 증대로 공연 활성화 - 인력 창출 효과	민간 극장 스텝 기획인력 지원 필요
D 사회적기업	창작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운영팀 인력 증가 및 인력 세분화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기간에 대한 차등지원이 필요(장애인의 경우 장기적 지원) 공연예술분야의 특성별 일자리 지원이 필요(시간제가 아닌 공연 횟수제로)
E 주식회사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시장 성공으로 단원 및 지원인력의 점차적 증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 경쟁력을 갖출 경우, 사업의 확장과 동시에 전용극장의 증가로 새로운 인력창출로 연결	상설공연장의 공연장 운영 Staff 지원 및 티켓 판매의 통합 시스템 제공(예: 뉴욕)
F 협동조합	처음엔 10인으로 출발하여 우수단체로 성장, 인력지원을 받으며 단원증대효과 및 공연 레퍼토리가 다양해짐	

법인/단체	고용증대/일자리 창출	제안사항
G 재단법인	다작제로 인해 많은 배우들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며, 차세대 연극인 Studio운영으로 배우의 풀이 넓어짐 (더 많은 인력에게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10개월 사업은 나이제한과 연장이 불가능함 외국과 같이 국립극단의 대규모 단원제가 필요 (영국/중국의 경우 단원이 300명 이상이 됨)
H 재단법인	콘텐츠 상품 가치 인정 후 지방 상설공연이 시작되며 고용 창출 효과가 생김	

나. 전문가 집단조사 결과

1) 단체의 경쟁력 강화

- 공연예술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설립 및 단체 특성/장르의 명확화가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많은 단체들이 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역량이나 일시적 콘텐츠를 운영하는 임의단체로서 단체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목표의식이 미미하고, 공공 지원금에 의존하는 의타적 단체가 많음
 - 단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에 대한 분명한 설립목적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단체 경쟁력에 필요한 제반 요건들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단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력 강화 필요가 있음
 -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체의 성격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단체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장성을 갖추어갈 때 단체의 경쟁력이 창출될 것임
 -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단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함께 콘텐츠를 발굴 생산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2) 정책 추진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연예술계 지원 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지원정책은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한 단체의 비전과 가능성 보다는 현재의 사업 (공연 창작 및 실연)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단체의 성장 및 지속적 발전에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임
 - 이에, 공연예술계에 대하여 미국의 시장 자율성(기부문화간접지원)이나, 유럽의 직접 운영체제(복지 혜택의 개념)처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상황 판단과 분명한 선택이 필요함
- 한정된 시장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개척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단체 스스로 자립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 프로젝트 성 지원이 아닌 공연예술단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연예술계의 틀의 확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 져야 함
 - 특히 한류 3.0 시대를 맞아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주력하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연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외진출을 위해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코디네이터 및 대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실제 해외로부터 일부 단체들이 초청을 받고 있으나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와 공연내용에 대한 소개, 공연방법 등 진행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공연에 대한 코디네이터 및 대행 업무가 절실함

3) 일자리 창출방안

- 아직 공연예술계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어 보다 명확하게 공연예술계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예술계의 일자리 특성상, 일자리 변화가 잦으며 일용직의 형태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단기인지 정규직을 말하는 것인지 고용 형태에 대한 정의 또한 필요함
 - 특히 고용계약서 등 없이 단기고용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력 관리 등이 어려워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리 및 고용계약서 등 일자리 취급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인력지원사업의 대부분 단기고용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기 고용된 자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인력 로테이션이 잦은 공연계의 특성을 살려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게 공연예술분야 인력 네트워크 센터 등이 필요함
 - 단순히 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고용기간의 연장과 연속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관리를 위한 인력관리 센터 및 협업제도 마련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인력관리센터의 경우 일자리 제공자와 전문 인력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인력의 경력을 지속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예를 들어 지역축제기획 인력의 경우,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계약이 끝나 경력 단절이 단절되고, 축제를 준비하는 기관은 새로운 인력(경력 검증이 안 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적함

제2절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는 정부의 공연예술단체 지원관련 정책을 실현하고 수행하는 5대 광역도시 및 지역 도청 문화예술과 담당 공무원들과 정부와 연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지역 문화재단의 공연예술 지원 사업 담당자, 공연예술관련 연구원 및 교수, 그리고 공연예술단체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인 공연예술법인/단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2013년 6월 24일부터 2013년 7월 4일까지 약 11일간 진행함
- 조사내용은 공연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질문으로 구성함
 - 조사내용은 공연예술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정부기관 및 전문기관 담당자, 공연예술법인/단체 담당자 등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도출함

〈표 3-13〉 조사개요

구분	내용	
대상	· 공연예술분야 정책 및 사업 담당자, 법인/단체 운영 관계자 - 각 시/도청 공무원 7명, 전문기관 담당자 12명, 공연예술법인/단체 관계자 25명, 관련 연구원/교수 2명	
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 (Survey Monkey)	
기간	· 2013.06.24 ~ 2013.07.04 (약 11일)	
내용 (총 22문항)	응답자 현황조사 (8문항)	성별, 소속, 관련 업무 경력 등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4문항)	경쟁력 강화 요소 등
	정부의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 (6문항)	정부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와의 관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
	공연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 (4문항)	일자리의 문제점, 일자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 사항 등

1) 모집단 선정

- 모집단 선정은 5대 광역도시 및 지역 도청 문화예술과 담당자 16명, 지역 문화재단의 공연예술 지원 사업 담당자 및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29명, 공연예술관련 연구원 및 교수, 그리고 공연예술단체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인 공연예술법인/단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40명 무작위 추출 및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경영인 협회 회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메일을 이용하여 참여 요청 (설문조사 전문 웹사이트 Survey Monkey를 이용하여 수집)
- 총 6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끝까지 작성 완료 한 48건을 바탕으로 Survey Monkey 통계 분석 프로그램 및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자 별로 5대 광역시 및 지역 도청 공무원 7건,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12건, 공연예술관련 연구원 및 교수 2건, 공연예술법인/단체 27건 총 48건 응답 완료
 - 참여 지역별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36건, 중부권 (강원도, 충청도) 4건, 호남권 (전라도, 제주도) 6건, 영남권 (경상도) 2건임

2) 설문지 구성²⁴⁾

- 설문지는 ‘응답자 현황’,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정부의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 ‘공연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 4개의 항목으로 나눔
- 응답자 현황 항목은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소속, 경력을 묻는 5개의 일반 현황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 중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에게는 세부적으로 법인/단체의 장르, 법적 형태, 단체 설립 유형(국/공립 혹은 민간)을 묻는 3개의 질문으로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음

24)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부록1 첨부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항목은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단체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 및 정책적 지원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음
- 정부의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 항목은 총 6개의 질문으로 구성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정책적 지원방식,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효과적인 지원 사업, 지원 정책의 만족도, 정책 결정시 공연예술계의 의사 반영도,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하여 묻는 6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음
 - 이 중 지원 정책의 만족도와 공연예술계의 의사 반영도는 5점 리카도 척도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에 대하여 묻는 2개 질문은 7개의 문항 중 순위별로 2순위까지 선택하게 하는 질문으로 구성함
-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 항목은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부문, 공연예술분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 공연예술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연예술법인/단체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일, 공연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묻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함

2. 조사결과

1) 응답자 일반 현황

① 성별

-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28명(58.3%), 여성 20명(41.7%)임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는 남성 16명(59.3%), 여성 11명(40.7%)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응답자는 남성 2명(28.6%), 여성 5명(71.4%)
 -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응답자는 남성 9명(75.0%), 여성 3명(25.0%)
 - 공연예술관련 연구원/교수 응답자는 남성 1명(50%), 여성 1명(50%)

② 응답자 연령대

- 20대 미만 응답자는 없었으며, 20대 5명(10.4%), 30대 20명(41.7%), 40대 15명(31.3%), 50대 8명(16.7%)임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는 30대가 12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대가 9명(33.3%)를 이룸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응답자는 40대가 4명(57.1%)로 주를 이루었으며 30대가 3명(42.9%)로 전체 응답자가 30~40대로 이루어짐
 -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응답자는 30대가 5명(41.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대, 50대가 각각 3명(25.0%), 2명(16.7%), 2명(16.7%)으로 이루어짐
 - 공연예술관련 연구원/교수는 50대 2명(100%)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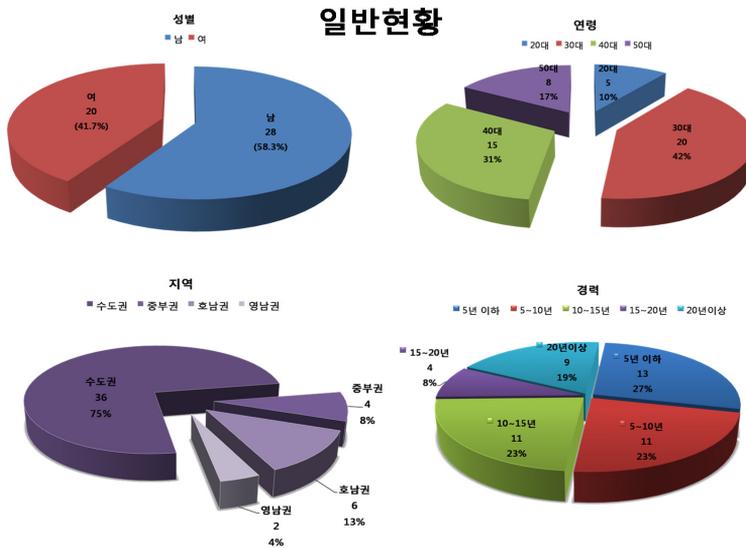
③ 응답자 활동/업무 지역

- 응답자 지역을 서울,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로 선택하도록 문항을 나누었으나 크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중부권(강원도, 충청도), 호남권(전라도, 제주도), 영남권(경상도)으로 나눔

- 수도권이 전체 응답자 중 36건(75.0%)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권 6건(12.5%), 중부권 4건(8.3%), 영남권 2건(4.2%)임
- 중부권에서 강원도는 응답자가 0건이었음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응답자를 제외 하고는 각 소속별로 수도권지역이 응답자의 50%를 넘었으며, 공연예술법인/단체는 전체 27건 중 24건(88.9%)이 수도권 지역임

4) 응답자 활동/업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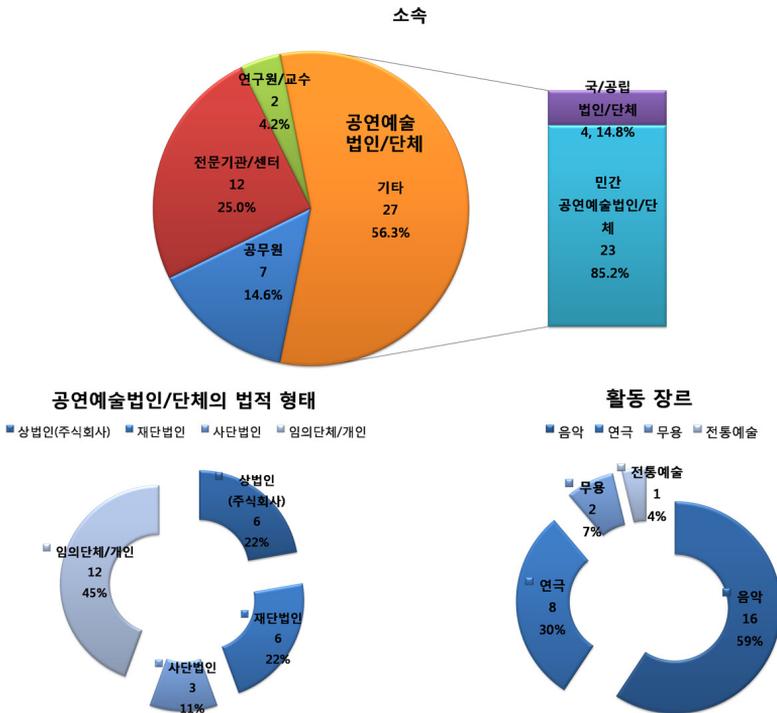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활동/업무 경력 5년 이하가 13명(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10-15년 응답자는 각각 11명씩(22.9%), 15-20년 4명(8.3%), 20년 이상 9명(18.8%)임
- 공연예술법인/단체는 10-15년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8명(29.6%),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은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5명(71.4%)로 가장 많았으며,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응답자는 5년 이하 4명(33.3%), 50-10년 3명(25.0%) 등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공연예술 관련 연구원/교수는 2명 모두 경력 20년 이상이었음



[그림 3-1] 응답자 일반 현황

5) 공연예술법인/단체의 세부 일반 현황

- 공연예술법인/단체 소속 응답자는 전체 48명 중 27명(56.3%)임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 중 23명(85.2%)은 민간 공연예술분야에 속해 있었으며 나머지 4명(14.8%)는 국/공립 공연예술분야 소속이었음
- 공연예술법인/단체의 법적 형태는 임의단체/개인이 12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상법인(주식회사), 재단법인이 각각 6명씩(22.2%), 사단법인이 3명(11.1%)임
- 응답자의 법인/단체는 장르별로 음악 16개(59.3%), 연극 8개(29.6%), 무용 2개(7.4%), 전통예술 1개(3.7%)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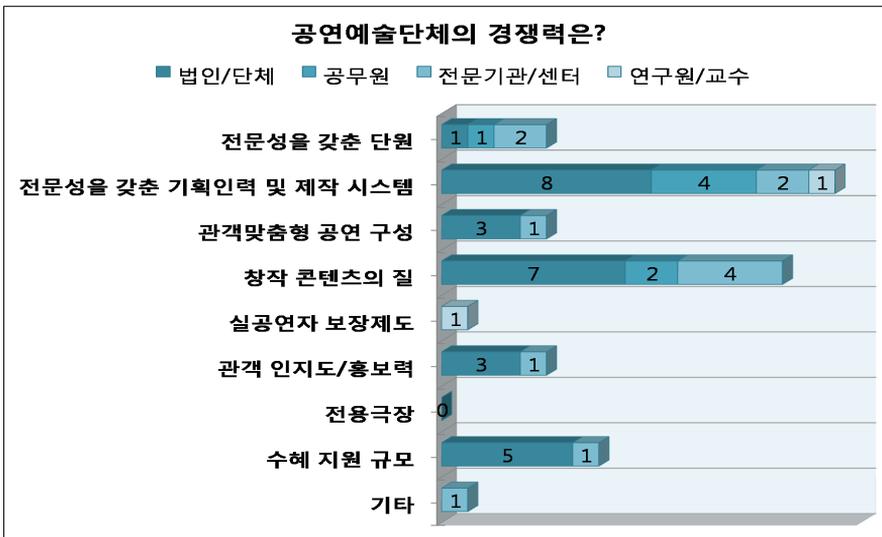


[그림 3-2]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 세부 일반 현황

2) 공연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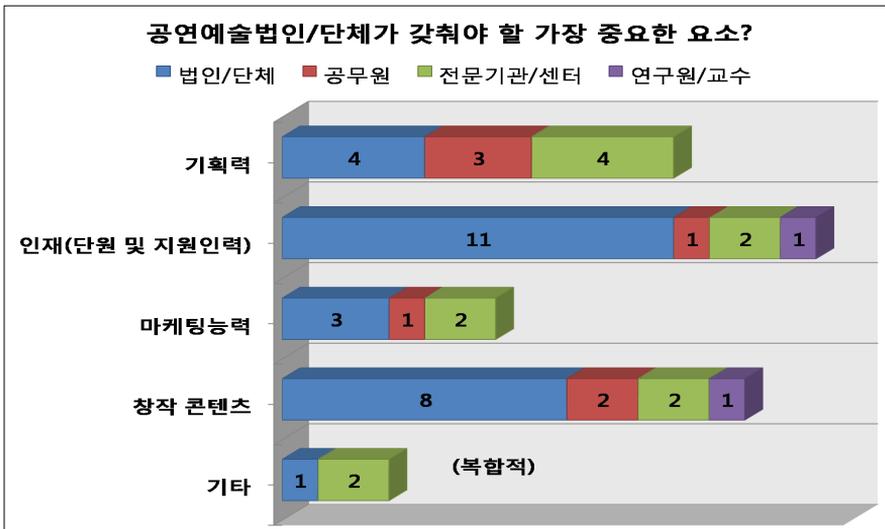
① 공연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

- 공연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은 전문성을 갖춘 단원, 전문성을 갖춘 기획인력 및 제작 시스템,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 구성(관객맞춤형), 창작 콘텐츠의 질, 실공연자 보장제도(4대 보험 및 기타 복지혜택), 관객 인지도/홍보력, 전용극장, 경제적/정책적 지원규모 및 기타로 이루어짐
- 전체 응답자 48명 중 15명(31.3%)가 전문성을 갖춘 기획인력 및 제작 시스템이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이라 생각하였고, 창작 콘텐츠의 질을 13명(27.1%)라고 생각함
 - 경제적/정책적 지원 규모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명(12.5%), 전문성을 갖춘 단원,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 구성(관객맞춤형), 관객 인지도/홍보력이 각각 4명씩(8.3%), 복합적이라는 기타 의견이 1명(2.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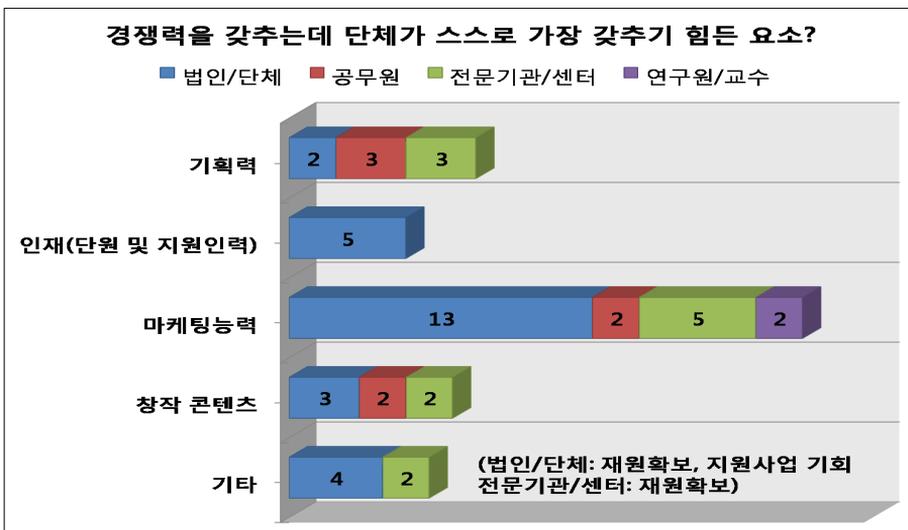
[그림 3-3]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은 57.1%(4명)가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을 전문성을 갖춘 기획인력 및 제작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연예술법인/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기획인력 및 제작시스템(8명, 29.6%)과 창작 콘텐츠의 질(7명, 25.9%)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임
 - 이 결과는 정책 시행 지원자와 수혜자 사이의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에 대하여 생각하는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예술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 선택지는 기획력, 인재(단원 및 지원인력), 마케팅 능력, 창작 콘텐츠, 기타로 구성됨
 - 전체 응답자의 31.3%(15명)이 ‘인재(단원 및 지원인력)’라 답했고, ‘창작 콘텐츠’ 27.1%(13명), ‘기획력’ 22.9%(11명), ‘마케팅 능력’ 12.5%(6명), ‘기타’ 6.3%(3명)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에는 기획능력과 마케팅/홍보력 등 복합적이라는 의견(2명)과 재원조성 능력(1명)이라는 의견을 보임



[그림 3-4] 공연예술법인/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 공연예술법인/단체의 응답자 중 11명(40.7%)이 공연예술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재(단원 및 지원 인력)’라 응답했으며, ‘창작콘텐츠’가 8명(29.6%)로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에 대한 생각과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에 대한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임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응답자들의 과반수는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이 전문성을 갖춘 기획 인력 및 제작시스템이라고 생각한 것과 같이 응답자 중 3명(42.9%)이 ‘기획력’이 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 ③ 공연예술단체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
- 위의 공연예술단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와 똑같은 선택 문항으로 구성함
 - 전체 응답자 중 22명(45.8%)이 ‘마케팅 능력’을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획력 8명(16.7%), 창작 콘텐츠 7명(14.6%), 인재(단원 및 지원 인력) 5명(10.4%), 기타 6명(12.5%)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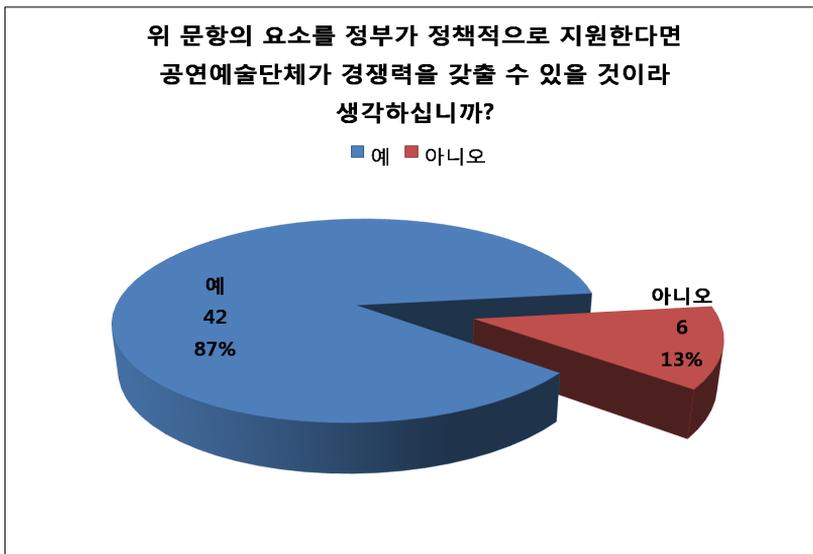


[그림 3-5]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가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

- 기타 의견은 공연예술법인/단체에서 4명, 공연예술관련 전문 기관/센터에서 2명이 응답 하였으며, 응답자 6명 모두 재정 및 경제적인 능력을 들었음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의 48.1%(13명)가 ‘마케팅 능력’을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로 들었으나, 공연예술 시/도 공무원 42.9%(3명)의 응답자들은 ‘기획력’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공연예술단체의 지원을 직접 단체에 시행하는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응답자들 과 41.7%(5명) 공연예술관련 연구원/교수 100%(2명) 역시 마케팅 능력을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라 응답함
 - 공연예술법인/단체는 스스로 기획력이나 창작 콘텐츠는 갖출 수 있으나 마케팅 능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연예술 시/도청 공무원은 기획력부족이 공연예술단체의 어려움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④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확립
- 질문 “위 문항의 요소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한다면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예/아니오”로 선택 하고 이유를 서술하도록 함
- 전체 응답자의 87.5%(42명)가 ‘예’라고 대답함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과 공연예술 관련 연구원/교수 100%, 공연예술법인/단체 88.9%,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75.0%가 예로 응답함
 - 예라고 생각하는 공연예술법인/단체 소속 응답자들이 서술한 이유로는 인적,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전문성을 가진 단원을 확보 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공연 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복합적 의견이 많았음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의 의견으로는 “연기자 중심이 아닌 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공연예술단체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자 양성 지원이 필요함”이 있었음

- 전체 응답자의 12.5%(6명) ‘아니오’라고 대답함
 - 공연예술법인/단체 혹은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소속 응답자들만 ‘아니오’라 응답함
 - ‘아니오’라고 응답한 이유들 중 지원 심사관(평가자)의 공정성문제, 행정을 위한 지원이 아닌 단체의 자생력을 위한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은 단체가 지원이 끊긴 후까지 자생력을 쌓기 힘들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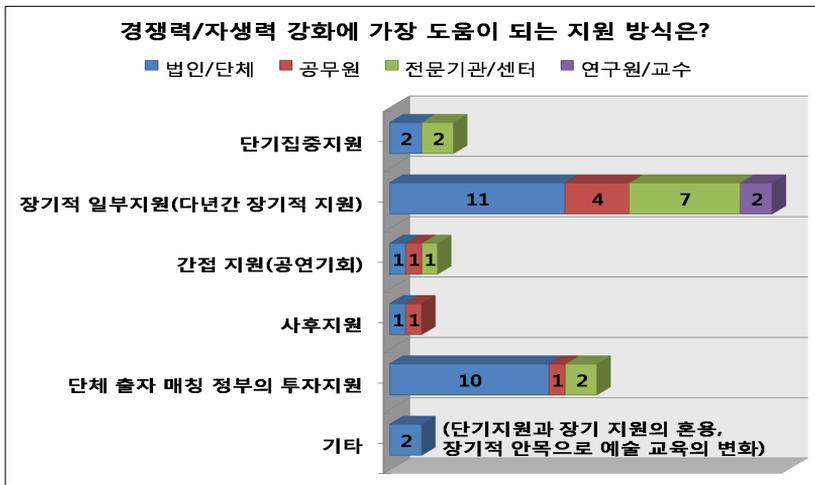
[그림 3-6] 정부의 지원과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의 관계에 대한 생각

3) 정부의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

- ① 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 지원방식
- “공연예술단체의 정책적 지원방법으로 경쟁력/자생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지원 방식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선택지는 ‘단기적

지원', '장기적 지원', '간접적 지원(공연기회 제공)', '사후지원', '단체의 출자율을 기본으로 한 정부의 공연 투자 지원', '기타' 항목으로 구성함

- 전체 응답자의 50%(24명)가 '다년간 장기적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체의 출자율을 기본으로 한 정부의 공연 투자 지원'도 27.1%(13명)로 응답이 많았음
- 특히,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각 소속별로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장기적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57.1%-4명,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58.3%-7명, 공연예술 관련 연구원/교수 100%-2명)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들은 '장기적 지원'도 40.7%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단체의 출자를 기본으로 한 정부의 공연 투자 지원'도 37.0%(10명)로 많은 응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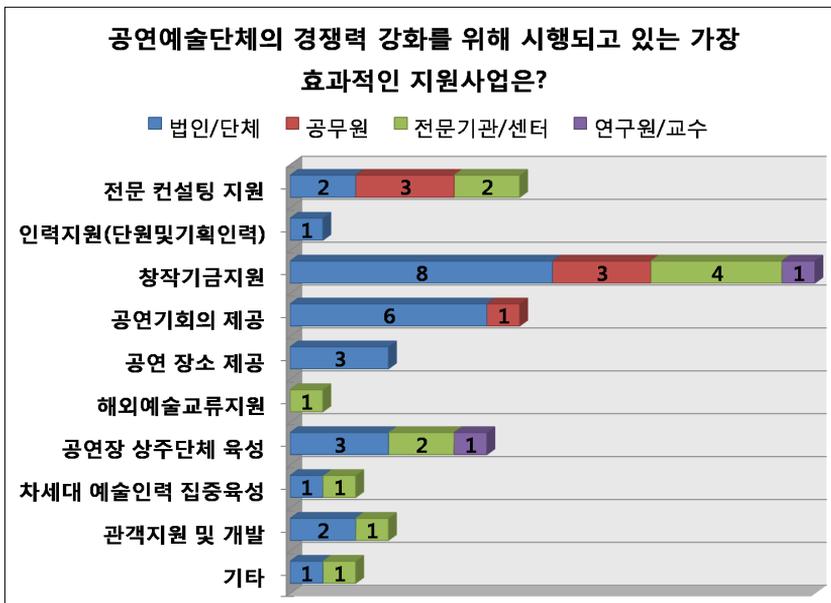


[그림 3-7] 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

- ②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사업
- 가장 효과적인 정부지원정책으로 '공연예술단체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인력지원', '창작기금지원', '공연기회의 제공', '공연 장소 지

원’, ‘해외 예술 교류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차세대 예술 인력 집중 육성 지원’, ‘관객 지원 및 개발’, ‘기타’ 10가지 항목을 구성함

- 가장 많은 응답은 ‘창작기금지원’으로 전체의 33.3%(16명)이 응답함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응답자들은 ‘창작기금지원’과 ‘공연예술 단체 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예술경영전문 인력양성 및 지원)’에 각 42.9%(3명씩)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공무원들이 공연예술단체의 기획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들은 ‘창작기금지원’ 다음으로 ‘공연기획 제공 (축제 및 상설 공연 지원 사업으로 공연 “판”을 꾸준히 기획/제공)’ 항목에 22.2%(6명)로 많이 응답하여 공연예술법인/단체들의 창작과 공연 기획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기타 의견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으며 지원받는 단체 만 반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상을 비판하기도 함(2명,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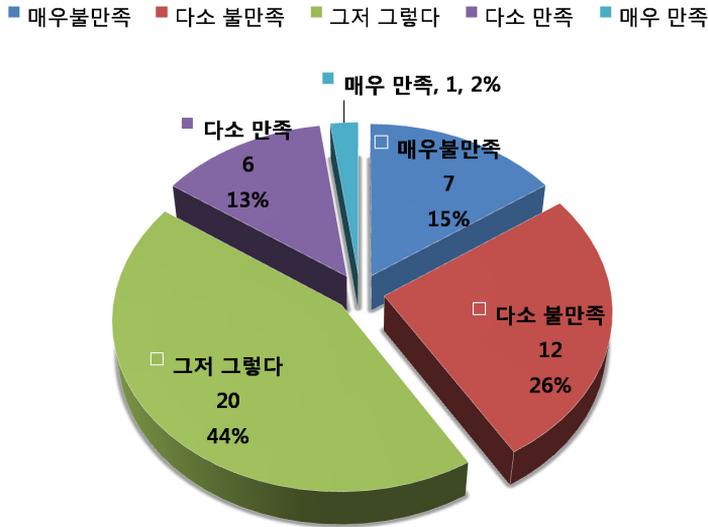


[그림 3-8]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지원사업

③ 공연예술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질문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41.7%(20명)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함
- 약 18.9%(9명)의 응답자를 제외 하고는 ‘그저 그렇다’ 혹은 ‘불만족’의 의견을 보임
 -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들의 55.5%(15명)가 ‘불만족’로 응답하였으며 ‘만족’은 14.8%(4명)로 응답함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들은 71.4%가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만족’과 ‘불만족’ 각각 14.3%(1명)씩 응답함
 -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 응답자들은 50.0%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소속에 비해 비교적 많은 33.3%(4명)이 ‘만족’에 응답함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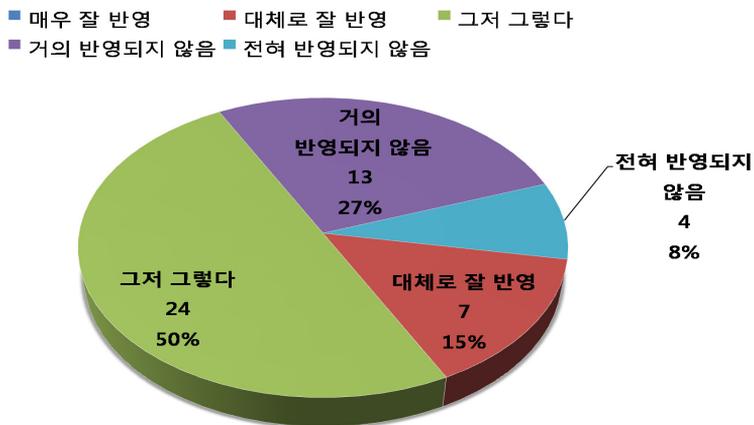


[그림 3-9]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④ 공연예술 정책 결정시 공연예술계의 의사 반영도

-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다’, ‘그저그렇다’,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항목의 5점 척도 리카도 응답 방식이 사용 됨
- 전체 응답자의 50.0%(24명)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4%(17명)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 14.6%(7명)이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함
 -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항목에는 소속과 상관없이 응답이 전혀 없었으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항목에 8.3%(4명)이 응답함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을 제외한 공연예술법인/단체, 공연예술 관련 전문기관/센터, 공연예술 관련 연구원/교수 응답자들은 대부분 ‘그저 그렇다’ 혹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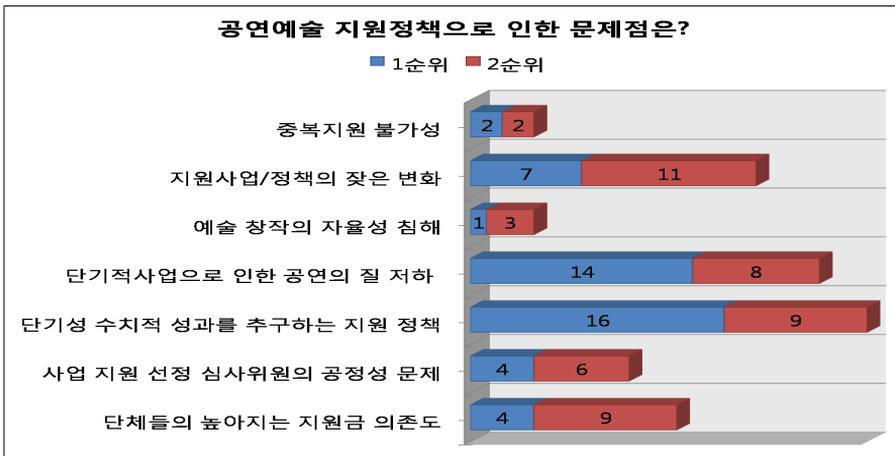
정책 결정시, 공연예술계의 의사 반영도?



[그림 3-10] 정책 결정에서 공연예술계의 의사 반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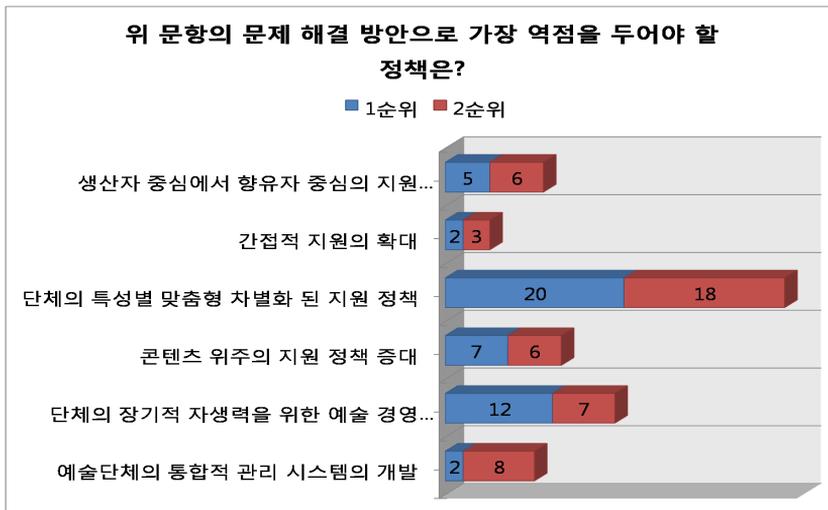
⑤ 우리나라 공연예술 지원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 ‘컨텐츠별이 아닌 단체별 지원으로인한 중복 지원 불가성’, ‘지원 사업/정책의 잦은 변화’, ‘예술 창작의 자율성 침해’, ‘단기적 지원 사업으로 인한 많은 소규모 단체의 양산과 공연물의 질 저하’, ‘단기성 수치적 성과를 추구하는 지원 정책 사업’, ‘지원 선정의 공정성 및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 ‘단체들의 높아지는 지원금 의존도’의 7개 항목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항목부터 1순위, 2순위를 따로 선택하도록 함
-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은 항목으로는 ‘단기성 수치적 성과를 추구하는 지원정책’이 33.3%(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적 지원 사업으로 인한 많은 소규모 단체의 양산과 공연물의 질 저하’가 29.2%(14명)로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함
 - 2순위로는 22.9%(11명)가 ‘지원사업/정책의 잦은 변화’를 지원정책의 문제점이라 응답하였음
 - 1순위, 2순위를 수치적으로 합산하여 본 결과, ‘단기성 수치적 성과를 추구하는 지원 정책’ 26.0%(25건), ‘단기적 지원 사업으로 인한 많은 소규모 단체의 양산과 공연물의 질 저하’ 22.9%(22건), ‘지원 사업/정책의 잦은 변화’ 18.8%(18건) 응답함



[그림 3-11] 공연예술 지원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 응답자들은 대체로 단기적 지원사업과 정책/사업의 잦은 변화를 문제점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⑥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 ‘생산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의 지원 정책 개발’, ‘간접적 지원의 확대’, ‘단체의 특성별 맞춤형 차별화 된 지원 정책’, ‘콘텐츠 위주의 지원정책 증대’, ‘단체의 장기적 자생력을 위한 예술 경영 교육 강화 정책’, ‘예술단체의 등록 및 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의 개발’ 등 선택지에서 1순위(첫번째), 2순위(두번째)를 각각 선택하도록 함
 - 응답자들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첫 번째로 41.7%(20건), 두 번째로 37.5%(18건)가 ‘단체의 특성별 맞춤형 차별화 된 지원정책’이라 가장 많이 응답함
 - 전체 응답건수 중 39.6%(38건)가 ‘단체의 특성별 맞춤형 차별화 된 지원정책’이라 응답하였고, 19.8%(19건)가 ‘단체의 장기적 자생력을 위한 예술 경영 교육 강화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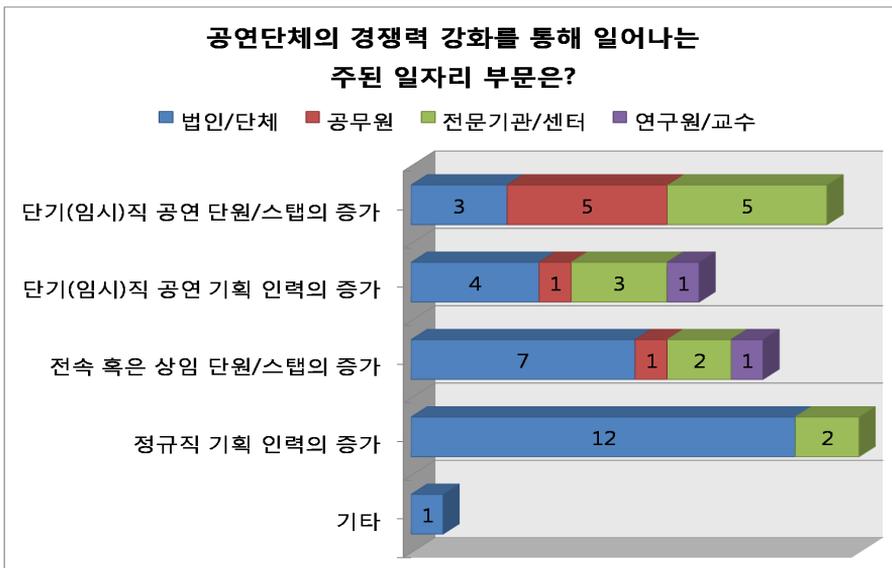


[그림 3-12]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4)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

①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분야

- “공연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로 어떤 부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선택지로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단원/공연 스태프의 증가’,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기획 인력의 증가’, ‘전속 혹은 상임 단원/공연 스태프의 증가’, ‘정규직 기획 인력의 증가’, ‘기타’ 5개 항목을 제시함
- 응답으로 ‘정규직 기획 인력의 증가’가 29.2%(14명)로 가장 많았고,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단원/공연 스태프의 증가’가 27.1%(13명), ‘전속 혹은 상임 단원/공연스태프의 증가’가 22.9%(11명),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기획 인력의 증가’가 18.8%(9명)로 나타남



[그림 3-13]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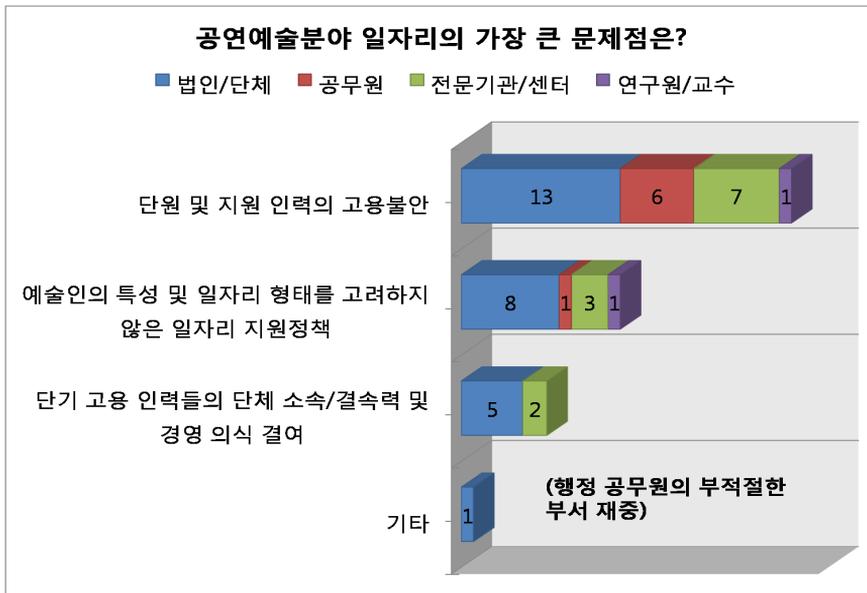
- 이 응답에서 공연예술법인/단체 응답자의 44.4%(12명)가 ‘정규직 기획 인력의 증가’로 답한 반면,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의 71.4%(5명)와

공연예술관련 전문기관/센터의 41.7%(5명)은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단원/공연 스태프의 증가’라 응답함

- 이는 지원정책/사업 수혜자인 공연예술법인/단체와 공급자(시행사) 간의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시각차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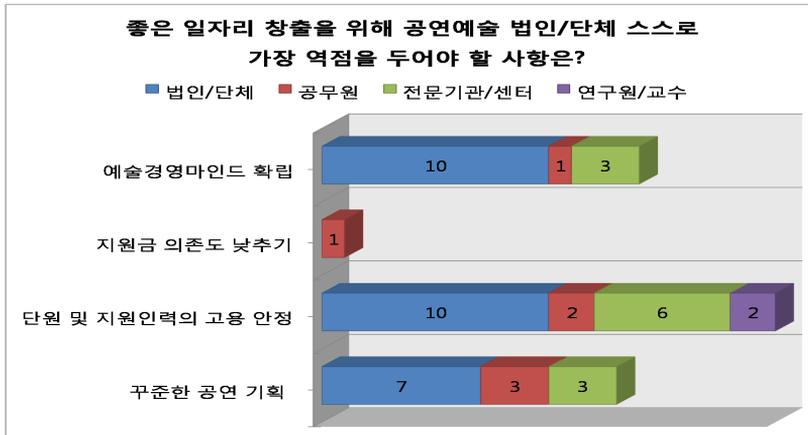
② 공연예술분야 일자리의 문제점

- “공연예술분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56.3%(27명)가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이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술인의 특성 및 일자리 형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지원정책’에 27.1%(13명)가 응답함
 -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 지원자와 수행자가 공연예술분야 일자리 문제점에 대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4] 공연예술분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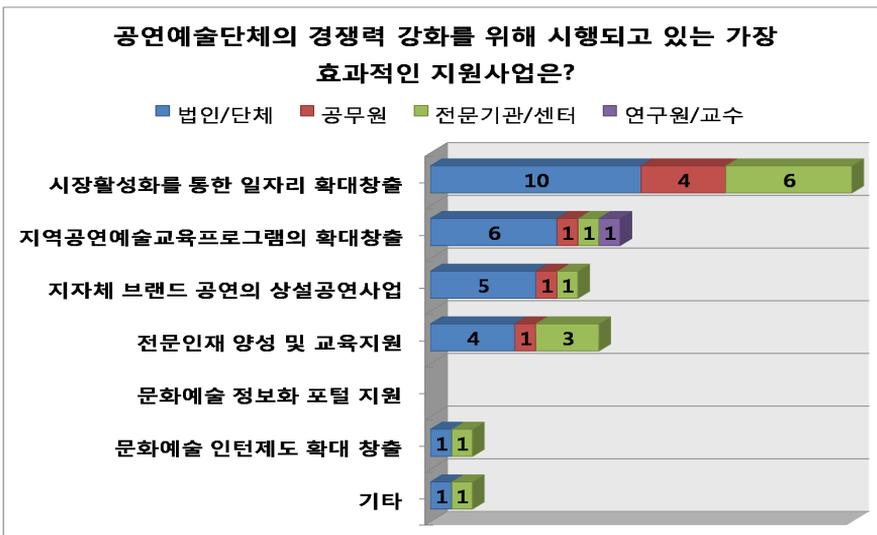
- ③ 공연예술단체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
- “공연예술단체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는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이 41.7%(20명)이고, ‘예술경영마인드 확립’이 29.2%(14명), ‘꾸준한 공연기획(상설 공연화)’가 27.1%(13명)로 응답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공연예술법인/단체 스스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 ‘단체의 지원금 의존도 낮추기’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부분 고르게 응답함
 - 연예술법인/단체는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 ‘예술경영마인드 확립’에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과 같은 37.0%(10명)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공연예술과 시/도 공무원 응답자들의 42.9%(3명)가 ‘꾸준한 공연기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3-15] 공연예술단체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④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41.7%(20명)이 ‘시장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창출(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 중심으로)’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지자체 브랜드 공연의 상설 공연 사업’에 14.6%(7명)이 응답함
- 그 외에 ‘지역 공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창출’에 18.8%(9명),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지원’에 16.7%(8명)이 응답하며 예술교육사업의 확대 및 인재양성 교육 분야에도 많은 응답을 보임



[그림 3-16]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제3절

시사점

- 공연예술단체 심층면담/실태조사 및 전문가/사업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정책과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의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점 및 지향점을 도출함

1. 지원정책/사업적 측면

1) 사업의 일회성과 성과 위주의 정책

- 정권이나 장관이 변경될 때마다 변화하는 단기적 지원사업과 정책/사업의 잦은 변화에서 공연예술법인/단체들의 행정적 끼워 맞추기식 지원이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이지 못함
- 작품 창작 건수, 공연 횟수, 공연 일수, 공연 관람객 수 등 수치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 선정으로 양적으로는 향유자 중심의 공연기회가 확대된 성과를 보였지만, 공연물의 질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며, 단체 심층 면담 조사에서도 예술적인 새로운 시도 및 투자를 지양하게 되는 경향을 보임
 - 수치적 성과위주의 정책 및 일회성 지원 사업들은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및 자생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장/단기 지원 사업 모두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정책/사업 개발 필요

2) 공연단체 분류/기준 일관성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안목 결여

- 공연단체를 등록/조사 하는 일관된 체계가 없어 공연예술단체 전체를 파악 하는 것은 어려우며, 지원 사업에 진행에 있어서도 각 사업진행 단체/

기관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별 진행되고 있어 영세 민간단체들이 정보를 안다 해도 행정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기획 인력이 적은 초기 단체들은 지원하기 힘든 실정임

- 효율적인 지원금 배분과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연예술단체들의 등록/분류/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연예술단체 또한 손쉽게 정보와 기획 멘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연예술계의 중심적 역할을 종합 포털 시스템(거점화)이 필요
 - 공연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지원 사업에 끼워 맞추기식 참여보다는 준비와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기획력을 키워 갈 수 있는 단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단체별 장르별 단계별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사업진행이 필요
- 설문조사 응답 중 단체의 응답자들이 사업 지원 선정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점을 들은 점과 선정된 단체들을 위주로 다른 사업에 재선정 되고 있다는 의견들은 심층면담에서도 지원 선정 시, 단체의 특성이나 개성을 살리지 못하는 행정적인 형식적인 면담 심사방식의 문제점으로 거론함
- 행정적 지원, 행정적 선정이 아닌, 예술단체의 획일적인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자질을 갖춘 예술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열린 시각의 심사위원 선정과 단체 지원자들이 평등한 기회와 선정망식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

2. 법인/단체적 측면

1) 경영의식의 결여

- 순수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일부 대표자들은 단체의 경제적 성공보다 예술가로서 예술이 좋아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이 보였으며, 단체의 경제적 성장으로 단원들의 생활 보장 및 안정화 작업보다 작품성 인정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재와 창작 콘텐츠라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유로 단체의 인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도 힘든 상황이 많이 보였으며, 콘텐츠의 질 또한 재정적 이유로 향상시키기 힘든 악순환이 발생됨
- 또한, 소규모 공연예술단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행정 서류 작업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설문 응답에서 집계됨
- 공연예술단체를 위한 기획인력 지원 및 전문예술경영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획인력 고용비용 지원 이외에도 전문 공연예술 기획인력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공연예술 단체 및 신생 공연예술단체들의 경영의식 개발을 위해 대학 및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예술경영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지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낮은 자구책 마련 방안

- 공연예술단체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나 자구책 마련 방안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생력 방안 마련에 수동적이고 미흡한 경향이 보였으며 이는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의 방안을 지원금으로 해결하고자 함
 - 큰 예술 단체나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공연들은 대부분의 수입이 티켓 판매수입에서 기인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연예술단체들은 공연예술시장의 장르별 특성상 시장 형성이 어려워 티켓 판매수익은 거의 없고 공연 행사에 따른 출연료나 기획료 등에 의해 단체를 운영하는 성향을 보임
 - 방방곡곡 순회산업, 신나는 예술여행 등 공연기회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이 사업들은 공연예술단체들이 다양한 공연 경험으로 관객 맞춤형 레퍼토리를 갖추게 되는 장점은 있었으나 창작공연의 질의 향상에는 효과가 미미함
 - 또한, 순회사업 및 공연 출연료로 얻어지는 수입의 대부분은 공연 출연

자의 몫으로 돌아가 단체의 현상유지는 가능하나, 대규모 작품 제작 및 질의 향상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금을 통해 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연결되기 힘든 실정

- 일정 액수의 창작지원금 배분으로 창작공연의 수치적 성과는 높일 수 있으나, 창작공연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 연출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국/공립 공연장 상주 단체 외에도 민간운영 지역 소극장과의 연계 지원 제도 및 공연 홍보 지원 등을 통해 공연단체들이 체계적으로 티켓판매 수익을 올리고 공연예술 시장형성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제도 필요

3. 시사점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은 실연자 뿐만 아니라 향유자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수치적 성과위주의 행정적 지원 사업이 아닌 단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차별화 된 지원정책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이 끝난 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 가기위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발전 가능성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연예술계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심사위원 선발과 공정한 심사 방식 선정이 필요함
- 또한 공연예술경영/기획인력들의 경영의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른 전문예술경영기획인력 양성사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예술경영교육제도 및 멘토링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단체 스스로 하기 힘든 공연예술계 시장형성 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4장 ●●

정책방안



제1절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SWOT 분석

1.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SWOT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강점 및 기회요소

- 공연예술단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
 - 타 분야와 달리 전공자이외의 다양한 인력들이 공연예술단체에서 시연, 기획, 교육, 홍보, 마케팅 인력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국내공연예술시장의 확대, 예술교육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의 연계, 해외시장 진출, 정책적 지원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단체의 경영의지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약점 및 위협요소

-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많은 기회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단체들은 단체 경영에 대한 목적의식이 미비한 편임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전문 인력이 중요함에도 단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도 어려우며, 단체의 비전 및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결여됨
- 특히 공연예술단체는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수동적이며, 단체의 재원 마련은 대부분 공공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체의 콘텐츠 투자 축소 운영 및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공연기회만 쫓는 운영방식과 콘텐츠 질 저하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뮤지컬, 콘서트 등 K-POP 스타를 활용한 대중/상업공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일부 공연예술단체는 공연프로그램의 질, 공연장 임대료 등 문제로 인하여 공연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공연예술 단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뮤지컬시장은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뮤지컬이 공급되는 등 2500억 가까이 성장하고 콘서트 시장 역시 K-POP을 중심으로 확대/성장하고 있으나 무용, 음악, 전통예술은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특히 국내 공연예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뮤지컬의 경우 70% 이상이 해외 수입이거나 라이선스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공연 예술시장 성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표 4-1〉 대내외적 환경 SWOT

S(강점)	W(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인력으로 구성 - 인력의 단체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창의적 콘텐츠 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경영의식 저하, 높은 공공의존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임의단체형태 다수 - 단기, 수치적 성과위주 정책지원으로 인한 장기 설정 어려움
O(기회)	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예술시장 확대 - 교육 및 관광 연계 공연기회 및 인력 수요 증가 - 한국공연콘텐츠 해외수요 증가 - 새 정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지원정책 확대 - 고용안정화 및 창조인력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에 대한 소속감 결여 및 잦은 이직 - 편향적 예술시장 형성 및 양극화 심화 - 해외시장 진출 및 수입으로 인한 국내예술단체 위축 - 정부예술지원예산 감소 및 지원정책 변화

2. SWOT 분석에 따른 대응정책

- SWOT에 따른 대응정책을 공연예술단체,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공연예술시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연예술단체

- 단체 특성화 및 자구책 마련 필요
 - 공연예술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비전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단체를 경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단체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 창작물 개발이외에 교육 및 지역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함

2)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 지원 정책 정체성 확립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원정책 시행
 - 정책기조에 따라 정책 및 사업을 바꾸고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시행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
 - 현장 및 전문가조사에 따르면 공공 지원의 대상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특히 정책 및 사업시행 기관 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표 4-2〉 STOW 대응방안

구분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경영의식 결여 -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특성화 - 자구책 마련 방안 계획 - 인력구조 문제 개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정책 정체성 확립 -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원정책 -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

3) 공연예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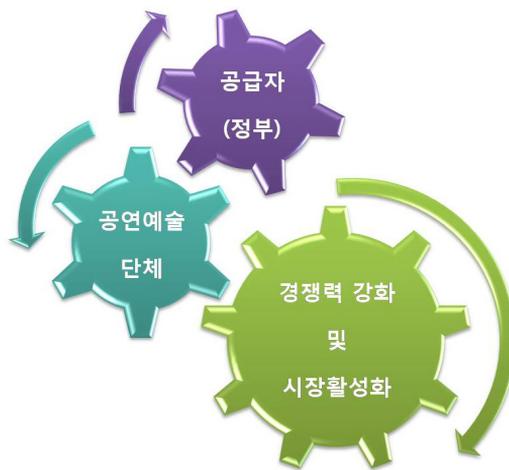
-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채용, 교육, 컨설팅 등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총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생태계의 거점(센터) 마련
 - 공연예술단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을 총괄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함
 - 이는 현재 유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기관설립을 통하여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여 나감
-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하여 단체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시장 진출 및 교육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공연예술시장 확대 가능성 확보

제2절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공연예술단체(생산자)의 자생력 방해 요인 분석 및 의식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정부지원정책의 구조개선을 통한 공연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정부 지원정책 문제점 개선을 통해 공연단체 경쟁력 및 일자리 지원의 효율성 강화
-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대를 통한 공연단체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시장 확대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



[그림 4-1] 기본 방향

2. 추진전략

- 공연예술단체 및 정부의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 수립
 - 공연예술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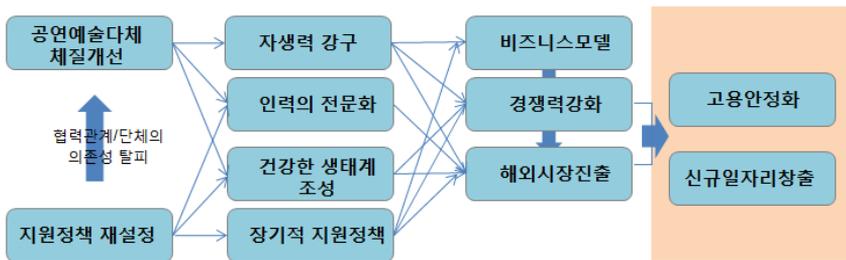


[그림 4-2] 추진전략 상세도

제3절

세부실천 전략

- 본 연구 제 2, 3장의 공연예술단체 및 지원정책현황, 전문가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도출한 공연예술법인·단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원정책/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토대로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3] 실천전략의 관계도

1. 공연예술법인단체 체질개선

1) 단체 콘텐츠(공연물)의 브랜드화

- 공연예술시장에서 특정단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 고유의 콘텐츠를 통한 브랜드화가 중요함
- 조사를 통해 많은 공연예술단체들이 콘텐츠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콘텐츠에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실제 많은 단체들은 티켓판매 수익보다는 공연 출연료 수입이 지원금

이외에 단체의 수익이 되는 실정으로 단체 특성화 보다는 점점 더 많은 관객을 포용 할 수 있는 관객 맞춤형 레퍼토리로 변화하고 비슷비슷한 유형의 단체가 비슷한 콘텐츠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

- 이에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새로운 시도와 투자로 질 좋은 콘텐츠를 개발/특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체만의 콘텐츠 브랜딩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로 관객이 찾을 수 있는 티켓 파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단체로서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조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조사 및 전문가 면담에서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계획에 대한 확신과 목표 설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지 하기 위하여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또 단체를 해체하고 있음
 - 단체는 개인의 예술작업이 아닌 여러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작품을 창작/기획하고 공연하고 결과물을 대중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만큼 단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체계적인 경영방안이 필요함
 - 이에 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단체 스스로 단체 설립 시부터 단체의 목적, 비전, 장단기 사업 및 공연 계획,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방향 제시가 필요가 있음

2)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방안 마련

- 현재 단체의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공연 외 수익과 지원금에서 벗어나 단체만의 다양한 형태의 수입창출 방안 마련 필요
 - 현재의 공연예술 시장 특성 상 민간예술단체의 티켓 판매 수익은 미미하며, 특히 지원금의 수혜 종료 후 단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의 수입원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함
 - 공연 이외의 다양한 활동 및 사업 추진을 통해 공연 외 수익 창출 방안 등은 단체의 역량 및 비전, 미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이때 경영 전

- 문가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때, 장기적으로 공연 외 수익 창출 방안으로 기획하여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재정적 준비가 필요함

〈표 4-3〉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외 수익 창출 방안 사례

단 체	공연 외 수익 창출 방안	비 고
극단 갯돌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기획 - 13회째 극단 갯돌이 지휘봉을 잡아 세계 80여개 팀이 참가하는 공연예술축제 기획하며 단체의 공연 외의 경쟁력을 강화	  <p>(자료: http://www.mimaf.net/)</p>
꿈꾸는 씨어터	공연장 대관 및 공연예술교육사업 - 지속적인 공연장 건립 준비를 통해 공연장을 마련하였으며, 공연이 없는 때에도 적극적인 공연장 마케팅을 통한 공연장 대관 사업과 공연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수익구조 마련	  <p>(자료: http://cafe.naver.com/kkumter/)</p>

- 특히 공연단체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콘텐츠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단체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감
 - 공연의 특성 상 단원이 단체 콘텐츠의 질을 판가름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아울러 단체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 하는 능력을 늘려 티켓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 인력의 예술경영마인드 확립이 필요함

- 이에 지속적으로 단원이 실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며, 기획인력의 예술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단체의 기획/홍보/마케팅 능력 향상을 도모함
- 또한 다양한 관객에 대한 관객 맞춤형 공연 콘텐츠 연구 및 개발로 20~30대가 주류인 공연예술시장의 관객의 폭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관객의 유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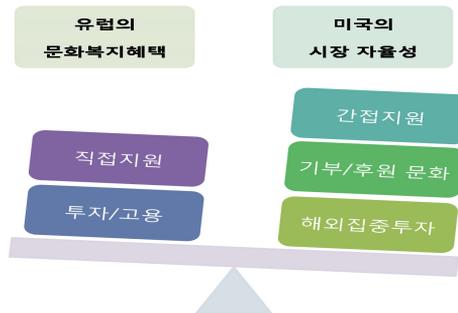
3) 근로환경 개선

- 공연예술분야의 특성 상 근로기본법 등에 제시되고 있는 수준의 고용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나 단원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 되고 있는 만큼 단원을 일회성 소모재가 아닌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단체 스스로의 기본적 처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공연단원의 전문성에 비례하지 않는 낮은 임금 책정, 노동시간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및 프로젝트성 고용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짧고 저임금의 특성이 있으며, 경력이 높은 단원 일수록 높은 임금 지출로 인해 전문성 있는 단원의 고용을 꺼리게 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공연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 횟수로만 제공되는 출연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월급제에 부가적 수당제 도입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공연 중 단원 부상 시, 단원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여 산정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앞서 제시한 단체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방안들을 통해 단원의 급여 및 상해 보장 제도를 통한 단원의 고용안정화 노력이 필요함

2.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방향 재설정

1) 지원 정책의 정체성 확립

-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 포지션 설정 필요
 - 유럽의 문화 복지혜택으로써의 공연예술분야 직접지원형식과 미국의 시장자율성에 따른 간접지원방식에 따른 구분 등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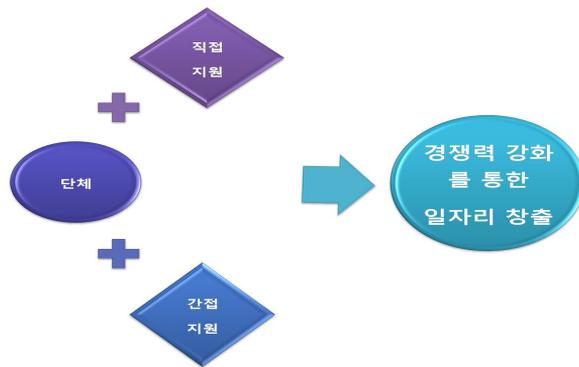


[그림 4-4] 유럽형 지원제도 VS. 미국형 지원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예산적인 면에서 유럽과 같은 전폭적인 직접지원은 불가능하며, 미국의 시장 자율성 방식을 따르기에는 공연예술분야의 기준 및 생태계의 틀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는 지원정책을 체계를 가지고 있음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기적 지원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등 지원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단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효율성 높은 한국 공연예술분야 특성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
 - 기존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및 한국 공연예술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 공연예술단체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원정책

-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변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정부의 장기적 지원을 통하여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단기적 프로젝트 성 투자/지원은 단체의 자금 운용에 제한을 가져오며, 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로 효율적이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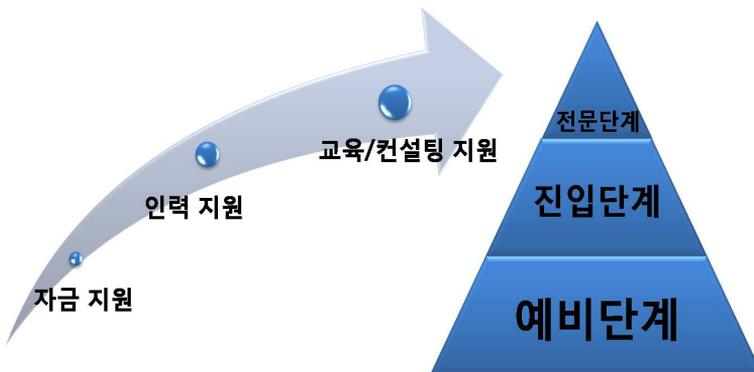
[그림 4-5] 공연예술지원정책의 기대효과

- 현재 진행 중인 직/간접적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공연예술법인/단체의 장기적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적절한 때에 적절한 요소의 직/간접 지원을 파악하여 단체에 적절히 해 줌으로써 단체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체계적인 지원 사업 계획

- 포괄적 지원에서 단체의 비전과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성장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체계 확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액 다건에서 다액소건 지원형태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소액 다건 지원방식의 저효율적인 지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형태를 갖추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
- 3단계 세분화된 단체 육성법을 통한 지원정책 수립
- 단체 지원방식을 단체의 전문성 및 가능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집중 지원해줌으로써 단체가 생성된 시점부터 시기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함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전문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3년간 단체 운영 인력비를 제공함으로써 연출가/기획 및 홍보/단원 모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며 작품 활동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전문단계에 이룰수록 직접지원의 형태에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 단체가 전문성을 띄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을 함
 - 3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하며 평가 후 재 지원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단체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그림 4-6] 직접지원의 단계화

3. 공연예술단체 간 건강한 생태계조성

1) 공연예술시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거점 마련(가칭: 공연예술단체지원센터)

- 공연예술단체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자원, 교육, 컨설팅까지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총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생태계의 거점(센터) 마련함
 - 정부의 공연예술단체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직·간접적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연예술계 생태계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 거점을 통하여 법인/단체 및 공연장의 통합적 정보 체계 마련함
 - 현재 각 센터별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의 명단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운영 중인 단체와 운영 중단된 단체들의 구분이 쉽지 않으며 정확한 수치적 통계를 내기 힘든 실정임
 - 이에 통합적인 단체 등록 시스템 구축하여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황파악이 필요함
- 행정적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이 진행 중에 있는 공연예술 정보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열린 통합적 정보의 장을 만들어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는 구매자들 또한 단체에 대한 정보 및 공연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관심 있는 단체의 공연 구매 및 후원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이는 단체에게 있어 홍보 마케팅의 기회의 제공, 관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공연예술에 대한 의식 제고의 장점과 함께 공연예술계의 포괄적 거점화 마련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구인중인 단체들이 거점 센터를 통해 서로 적극적으로 교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함

- 분야별 직무별 공연예술계 고용시장의 직업수요 및 공급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며, 고용기반을 구축하며 문화예술분야의 취업가이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아울러 각 시/도 및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구인/구직 연계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하여 공연예술분야에 특성화된 일자리 통합 정보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예:서울시의 e-문화복덕방〉

- 서울 e-문화복덕방은 서울특별시에서 공연예술단체와 공공기관, 예술가와 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종합 포털 사이트로 문화행사, 문화공간, 문화나눔, 문화지원, 문화 일자리, 문화감각 등으로 구성됨
- 웹사이트 및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함



출처: <http://culture.seoul.go.kr>

- 그 외 체계적 교육기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함
 - 단체들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맞춘 예술경영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단체 운영자의 경영 마인드 확립을 통해 단체의 장기적 성장을 유도함

- 컨설팅을 원하는 공연예술단체와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연계 지원으로 단체의 특성별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기회 제공을 통해 자생력 향상 유도
- 예술인 및 공연예술 서비스 산업인 육성프로그램을 단체와 연계 제공함으로써 전공자 및 비전공자 모두가 균등하게 고용기회를 제공받으며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장기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감

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 현장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군별 프로그램 강화

예술경영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의 직군별 필요 실무 역량, 직무 응용 능력, 리더십, 자기 개발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제작, 홍보마케팅, 조직경영, 국제교류 등 교육 대상자의 업무 특성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기획자를 위해 '찾아가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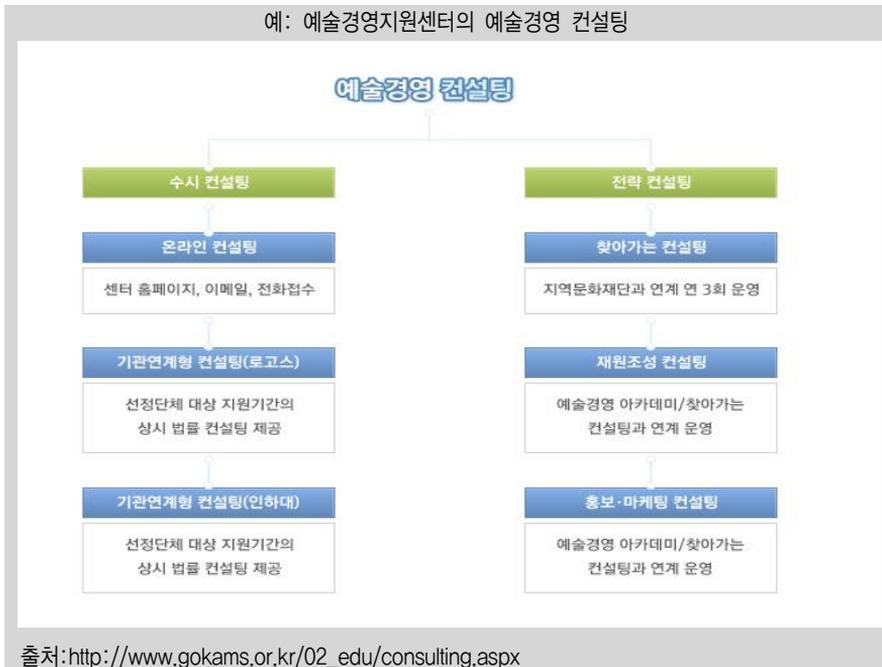


▶ 핵심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 함양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 종사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강좌별로 지식, 정보, 노하우 등을 제공합니다. 재교육을 목표로 현장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05년 이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운영하여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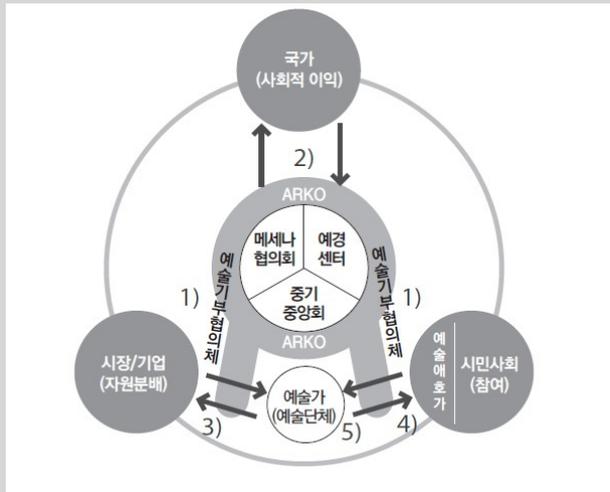
○ 단체와 기부/후원/투자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

- 공연예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진행 민 기부 캠페인 운영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공연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 현재 문화예술 기부 매개기관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매세나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부지원노력을 연계 통합하여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단체를 위해 자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기부/후원/투자와 관련 단체의 자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계 정보 등록에 관한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으로 단체의 회계 정보

공시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잠재적 기부/후원/투자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함²⁵⁾

예: 문화예술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예술기부 활성화 전략 : 매개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윤정국(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매개기관의 도움과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메세나협회-중소기업중앙회-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매개기관의 협력을 통한 예술기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그 필요에 따른 국가-기업-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중심기구의 상호협력 운영체계 방안과 예술기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한 예술기부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그림 4-7]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도

(* 자료 출처 : 윤정국(2012), 문화예술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예술기부 활성화 전략 - 매개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제26집 2호, 32-55)

- 연계 통합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
 - 각계 부처의 공연예술분야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통합 연계 서비스 체계구축 및 해외공연예술전문 마케터 발굴/지원을 통해 시장성 강화 및

25) 허은영(2009),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0p

진출 컨설팅 기회 제공을 통해 해외 시장 가능성을 갖춘 단체들이 언어 및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며, 또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시켜나감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공연예술 단체들의 공연물 해외 유통 증진을 위한 해외 공연 투어를 직/간접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지원함
- 그 외에도 다양한 해외 공연예술 협회들과 네트워크 형성, 서울 아트마켓 주최 및 기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 중에 있음
- 단계적 전략적 지원 사업들의 진행으로 공연예술단체들의 해외 진출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이외에도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기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직접지원(항공비 및 숙박비) 및 간접지원(콘텐츠 번역 및 마케팅 지원)을 진행 하고 있음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출처: http://www.gokams.or.kr/04_exchange/overseas01.aspx#none

2013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센터스테이지코리아-공모형) 2차 사업 공모 안내: Center Stage Korea - International Touring

1.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한국 공연의 해외유통 효과 증진을 위한 국제 투어링 촉진
- 대상 사업: 1개 이상의 한국 공연예술 단체가 2개 이상의 해외 공연장/축제를 연계 투어링하는 사업
 - ※ 2013년 4월~12월 중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 ※ 투어링은 한국 출국 후, 2개 이상의 해외 공연장/축제에서 공연을 연속적으로 진행, 완료한 후 귀국하는 사업을 의미함
 - ※ 해외 초청 측이 피초청 한국 공연예술 단체에게 공연료를 포함한 합당한 초청조건을 제시·이행하는 사업에 한함
 - ※ 지원 불가능 사업 및 우선지원 고려대상은 첨부한 공모 가이드 참조
- 대상 장르: 연극, 무용, 복합, 다원, 음악
- 신청 주체: 한국 공연예술 단체
- 지원 항목: 국제 항공료 및 화물운송비(전액 또는 일부)

...

4. 심사 및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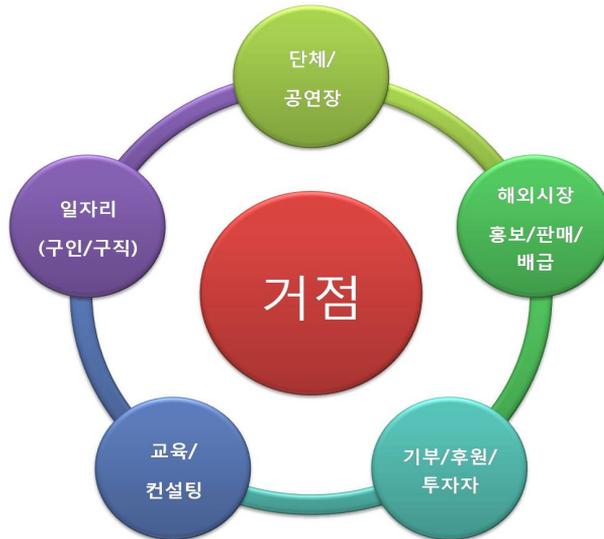
1) 심사 개요

- 심사 방법
 - 1차: 예술경영지원센터 행정심사
 - 2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 심사 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실행가능성 여부
 - 신청사업이 국내외 미치는 파급·기대 효과
 - 해외 초청기관의 사업 기여도 (공연료, 홍보마케팅 등 초청 조건 고려)
 - 신청사업이 향후 예술가/단체의 해외투어링 역량 강화에 미치는 중요도

5. 비고

- 문의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시장개발팀 허정아, 김윤경
02-708-2287 / 1107na@gokams.or.kr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전화02-708-2287이메일1107na@gokams.or.kr

- 공연예술계 연계 통합형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와 민간 기업, 그리고 관객까지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회 제공의 장이자 통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공연예술계 생태계 형성을 통해 각 분야의 필요에 의한 적극적 참여와 소통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공연예술계 시장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그림 4-8] 공연예술지원센터의 중심 거점화

2)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시장 활성화

- 한류 3.0세대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과 공연예술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한국 드라마의 수출로 시작된 한류 1.0, K-Pop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류 2.0은 한류가 공연예술계로 연결 지어지는 계기가 됨
 - 동방신기, 소녀시대, 그리고 싸이까지 K-Pop스타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한국 문화로의 기대와 관심으로 이어짐
 - 한류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며 한류 3.0세대에 돌입하며 뮤지컬, 전통예술 등 콘텐츠로 확대

한류 K-Pop스타와 국내 뮤지컬 일본 공연

유노윤호-지오-승호 등 가요계 한류스타, 뮤지컬 '광화문연가' 캐스팅,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스타들이 뮤지컬 '광화문연가' 로 뭉쳤다.

동방신기 유노윤호, 엠블랙 지오, 승호, 초신성 성재, FT아일랜드 최민환, 제국의 아이들 케빈이 뮤지컬 '광화문연가' 일본 공연에 출연을 확정했다. 공연 제작사 측은 "유노윤호를 비롯해 이번 공연에 함께하는

스타들은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로 작품의 완성도와故이영훈 작곡가의 음악을 꼽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 뮤지컬 중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한 작품에 출연한 경우는 없었다. 때문에 지난 9월 오픈한 뮤지컬 ‘광화문연가’ 일본 공식 홈페이지(<http://www.k-koiuta.jp>)는 일주일 내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현지 언론에서도 애타튀 공연소식을 전하며 일본 내에서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뮤지컬 ‘광화문연가’가 오는 11월10일 오사카 신가부키좌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관객들을 만난다. 오사카 공연을 시작으로 2013년 1월에는 동경 메이지좌극장으로 옮겨 공연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2월 북경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갖고 내년 중국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후 80년대의 고국의 향수에 젖어있는 미주 교민들을 위한 미주투어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최정아 기자 cccjjaaa@sportsworldi.com,

(자료출처: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21022025091&s_ubctg1=20&subctg2=00&OutUrl=daum)

- 적극적 마케팅 및 홍보로 K-Pop스타에서 한국의 우수 공연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내/외 공연예술계의 시장 확대 효과 기대
 - 한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아가려는 노력과 한류의 흐름을 파악하여 시기에 편승한 전략적인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분야 시장의 확대 기대
 - 국내 유입 관광객들 또한 미국의 라스베가스(Las Vegas), 브로드웨이(Broad Way)처럼 질 좋은 우수 공연으로 한국 공연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단체는 콘텐츠의 브랜딩을 통한 상설 공연화를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 시키고 그로인한 자생적 일자리 인력 창출효과도 기대 가능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MOU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MOU 체결, 부처간 ‘칸막이’ 허물고 ‘한류’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화 협력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홍상표)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위원장 권영빈),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사장 오영호)는 19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류진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확산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 체결은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소

문화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무역투자 전문기관 간 노하우 및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추진됐다. 3개 기관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문화와 산업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내외 전시화마켓 등 개최 및 참가 관련 협력 △한류콘텐츠 시장 다변화 및 한류 연관 상품 동반 수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및 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게 된다.

이들은 또 문화예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 마케팅 △해외사무소 및 무역관과 연계한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확대 등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이들 기관들은 이와 함께 △한류콘텐츠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해외 한류거점별 현지 전문 인력 활용 및 양성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콘텐츠의 근간인 순수 문화예술의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한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콘텐츠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진룡 장관은 3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한국 문화 및 한류 콘텐츠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류 콘텐츠 및 한류 연관 상품의 확산을 돕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실현의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조화롭게 소통공존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원효의 원융회통(圓融會通) 가르침처럼 한류가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3. 07.19. 출처: www.kocca.kr/notice/report/1814879_3332.html

4. 일자리 창출 방안

-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창출은 궁극적으로 단체와 정부정책이 협력하여 단체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고용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함

1) 단체 경영에 대한 인식 강화

- 단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단체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단체 경영에 대한 인식 확대
 - 단체 실태조사 및 전문가의견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현재 다수의 단체들이 단체성장에 주력하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형태가 많아 우선 단체로서 제 모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2) 고용안정화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 공연예술단체의 고용특성을 나타내는 저임금, 단기고용, 고용불안 등의 문제는 단체의 경쟁력과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연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임

예술인복지법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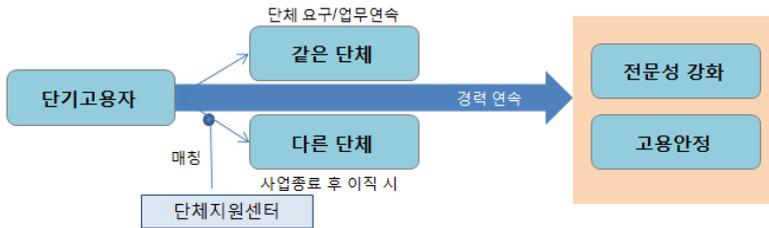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2011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난항 끝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이 창작에 집중하도록 안전망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먼저 예술인 활동증명 절차가 까다롭다. 예술인복지법에 명시된 예술인에는 문학·미술·무용계 순수 예술인들을 비롯해 방송연기자, 연출·음향, 스탠트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작품 활동 경력 또는 실적 등을 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한 뒤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술인으로 증명을 받아야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예술인복지법의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예술인복지법에서 산업재해 보험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임의 가입 방식으로 월 1만 1660원~5만 1930원의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 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스탠트맨을 양성하는 서울액션스쿨의 송원종 총무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스탠트맨들 내부에서는) 아직 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라며 “특히 (스탠트맨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수입이 일정치 않아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잖다”고 말했다. 2013. 7.25.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PD저널] 제공

- 특히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인력지원정책의 경우, 단기고용문제 심화 및 인력의 경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사업운영의 지속성 및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력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단기고용자에 대한 인력풀을 관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하나의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거나 유사업무를 다른 단체에서 연결하여 할 수 있도록 고용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 필요



[그림 4-8] 인력활용과 고용안정

3) 시장 개척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류 3.0시대의 흐름에 편승 해외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는 국내 공연단체와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기획자, 번역자, 행사진행자 등 관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현재 국내공연단체가 해외진출은 해외시장의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못하거나 해외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여 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문헌

- 김효정(2011), 정부고용지원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고용정책방안
- 라도삼(2010), 문화예술정책의 미래, 미래의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3 No.2
- 류정아(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2012), 「2012 공연예술실태조사」
- (재)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공연예술 실태조사」
- 박영정(2009), ‘공연예술분야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건열(2009), ‘예술문화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효석(2010),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예술경영연구, 2010, 제 17집
- 예술경영지원센터(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예술인정책연구 보고서-3
- 예술경영지원센터(2012),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2011년기준)』.
- 이용관(2013.01),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융합형 일자리 창출. KCTI 가치와 전망, 제 13호(2013-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원재(2013),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분석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포럼(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안적 문화정책의 구상 제 2발제
- 정광렬(2010),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0-39
- 정명주, 영국의 문화예술사회적기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2013.2), 이슈총론 창조경제시대 일자리 창출의 보물창고, 문화체육관광, 박광무
- 허은영(2009),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0p

허은영(2010),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 영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은영(2011),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층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1·24

허은영(2012), 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은영(2012),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허은영(2012). 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은영(2012).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연구원

웹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7&sec=1>

언론보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9.28.), “월급 적지만 업무내용 만족한다”-문화복지
대국민 서비스 담당자 직무인식 조사, 보도자료

박상언(2012.02.06.), ‘선택과 집중’이나 ‘포괄과 분배’냐, 칼럼, 충청투데이, 20
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623>

매일경제(2013.1.16.), 박정부, 지식문화 10조 ‘마중물 투자’…일자리 年 45만개

ABSTRACT

Policy measures for increasing cultural job cre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Kim Hyojeong

In Korea society, especially in the age of creative economy, the importance of creating jobs has steadily been increasing. This can be seen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Vitalization of this field has been shown by success in some parts of performing arts such as musicals, opera and plays. However, the performing arts sector circumstances has yet to be improved with its narrow market size, high theater rental cost, program quality issues, and the lack of business skills of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ays to increase good sustainable jobs in the sector through enhancing organizations self-reliance and competitiveness as well as to expand employment.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stabilize the performing arts sector of Korea with effective and efficient government policy measures.

To this end, this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below:

- to improve the Korean performing art organizational structure
- to reorient government support policys for the performing arts sector
- to create an ecosystem for the performing arts sector
- to enhance job creation

부

속



부록1. 전문가 심층면담 설문지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제반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의 사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리며,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5

※ 연구책임자: 김효정 책임연구원, 문화예술실
Tel. 02-2669-9839 Fax. 02-2669-5882

공연예술단체 현황 조사

1 응답자 일반사항

기관명			운영 형태	1.법적	상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혹은 개인	
				2.장르별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세부 분야					
대표자	설립자	공공 지원 정책 수혜 제도	전문공연 예술법인/ 단체 지정	사회적 기업	공연장 상주 육성 단체 선정	기타 지원금 수혜 1			
						기타 지원금 수혜 2			
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		
							팩스		
인력 현황			단원수 (명)	단원		지원인력		개관 연월일	
				상근	비상근	정규직	비정규		
			총 (명)						

1. 귀 단체의 자체 수입은 얼마입니까?

※ 자체수입은 공연사업수입(티켓판매수입/단체소유공간에 대한 대관료 수입/공연관련 판매수입/협찬수입), 공연 이외 예술사업수입, 기타 수입, 차입금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면 수입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의 비중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총 수입	공연사업 수입	공연외사업 수입	공공지원금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	비고
종류							
%							
원							

2. 귀 단체의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구분	총 지출	공연사업비			공연 외 사업비	경상 운영비		기타 지출
		출연료	마케팅/ 홍보비	기타		인건비	기타	
구분								
%								
원								

※ 공연사업비는 기획·제작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인 출연료, 홍보비, 마케팅비, 연습비 등을 말합니다.

※ 공연 외 사업비는 전시사업비, 교육사업비, 교류사업비, 기타 문화사업비 등 모두 포함합니다.

※ 경상 운영비는 인건비, 부서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합니다.

3. 귀 단체의 지난 1년동안 기획/제작한 작품 및 공연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질 문	응 답	비고
지난 1년동안 기획/제작한 작품의 공연 건수?	건	
지난 1년동안 기획/제작한 작품의 공연 일수?	일	
지난 1년동안 기획/제작한 작품의 공연 횟수?	회	
지난 1년동안 기획/제작한 작품의 총 관람객 수?	명	
지난 1년동안 기획/제작한 작품의 총 수입?	원	

4. 귀 단체의 활동 전반에 관한 Promotion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Promotion 수단	지 출	평 가

2 심층 인터뷰

경쟁력

Q1. 귀 단체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Q2. 귀 단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은 무엇입니까?	
Q3. 귀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 정책 중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간접지원? 직접지원? 제도적 혜택?)	

Q4. 귀 단체가 지원정책을 통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5. 귀 단체에서는 어떠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지원하셨습니다? 어떤 수단/매체를 통해 참여/지원하게 됩니까?

Q6. 기타 의견 (지원정책 수혜 후 느낀 단체의 변화?)

고용/일자리

Q1. 귀 단체의 인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단원/지원인력)				
〈단원〉		〈지원인력〉		
〈포괄적 인재상〉				
Q2. 고용 조건 (채용 조건)이 있습니까?				
	단원		지원인력	
	상근	비상근	정규	비정규
연령				
학벌 (전공/비전공)				
경력				
기타				
Q3. 귀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 조건과 평균 근로 기간과 이직률은? 또한, 특별히 직원들을 위해 시행하는 단체 내부 정책이 있습니까?				
	단원		지원인력	
	상근	비상근	정규	비정규
근로조건				
평균 근로 기간				
이직률				
기타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 및 정책?〉				

Q4. 귀 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관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Q5. 인력 및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바라는 점 및 제안 사항?

Q6. 기타 의견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2.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국회 연구기관으로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제반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의 사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시는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8조와 9조에 의거하여 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리며,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6

※ 연구책임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김효정 책임연구원, 문화예술실
Tel. 02-2669-6988 Fax. 02-2669-9882

공연예술법인/단체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 속하고 계신 공연예술분야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 국/공립 공연예술분야
- 민간 공연예술분야

*7. 귀 법인/단체의 법적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상법인(주식회사)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혹은 개인

*8. 귀 단체의 주된 활동 장르는 어떻게 됩니까?

- 음악
- 연극
- 무용
- 전통예술

***16. 공연예술 정책 결정에서 공연예술계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17. 우리나라 공연예술 지원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과 차등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사항을 각각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문제점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8. 위 문항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2개 선택)**

첫번째 두번째

순위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9.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전문성을 갖춘 단체
- 전문성을 갖춘 기획인력 및 제작 시스템
-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 구성(관객맞춤형)
- 창작 콘텐츠의 질
- 실공연자 보장제도(4대보험 및 기타 복지혜택)
- 관객 인지도/홍보력
- 전용극장
- 경제적/정책적 지원 규모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0.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력
- 인재(단체 및 지원 인력)
- 마케팅 능력
- 창작 콘텐츠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1.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단체 스스로 가장 갖추기 힘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력
- 인재(단체 및 지원 인력)
- 마케팅 능력
- 창작 콘텐츠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위 문항의 요소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아니오 대단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이유:

정부의 공연예술단체 지원 정책

*13. 공연예술단체의 정책적 지원방법으로 경쟁력/자생력 강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지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 단기적 지원(단기 집중 지원)
- 다년간 장기적 지원(장기적 일부 지원)
- 간접적 지원(공연기회제공)
- 사후 지원
- 단체의 출자율을 기본으로 한 정부의 공연 투자 지원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4.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연예술단체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예술 경영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 인력지원(공연단체의 인력 및 기획인력)
- 창작기금지원
- 공연기회 제공(축제 및 상설 공연 지원 사업으로 공연 "판"을 꾸준히 기획/제공)
- 공연 장소 지원(민간 소극장-예술 전용 공간 지원)
- 해외 예술 교류 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국공립 공연장)
-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 육성 지원
- 관객지원 및 개발(예: 사랑티켓, 문화 바우처)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그저 그렇다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 창출

***19. 공연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로 어떤 부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단원/공연스텝의 증가
- 프로젝트별 단기(임시)직 공연 기획 인력의 증가
- 정속 혹은 상임 단원/공연스텝의 증가
- 정규직 기획 인력의 증가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0. 공연예술분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저임금, 정규직 부재, 등)
- 예술인의 특성 및 일자리 형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지원정책
- 단기 고용 인력들의 단체 소속/결속력 및 경영의식 결여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1. 공연예술단체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술경영마인드 확립
- 단체의 지원금 의존도 낮추기
-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
- 꾸준한 공연 기획 (상설공연화)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2.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창출(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 중심으로)
- 지역 공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창출
- 지자체 브랜드 공연의 상설 공연 사업
-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 문화예술 정보화 포털 지원
- 문화예술 인턴제도 확대 창출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유하나 (Western Illinois University
Recreation, Park and Tourism
Administration 석사)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행인 박광무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13년 8월

발행일 2013년 8월

인쇄인 크리흥보(주)

ISBN : 978-89-6035-413-5 93300